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올레길 경험의 역동성 연구

The Dynamic Nature of On-site
Jeju Olle Experience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이 보 미

제주 올레길 경험의 역동성 연구

The Dynamic Nature of On-site
Jeju Olle Experience

지도 김 성 섭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6월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이 보 미

이보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 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2010년 6월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자연림 경험의 역동성	8
1. 자연림 경험	8
2. 역동성 연구	11
3. 자연림 경험의 역동성	15
제 2 절 제주 올레길 경험의 편익.....	17
1. 편익의 개념	17
2. 자연림 편익	20
3. 편익의 요소	22
1) 건강	22
2) 사회적 관계	24
3) 경험하며 배우기	26
4) 성취감	29

제 3 절 제주 올레길 경험의 장소애착과 무드	31
1. 장소애착의 개념	31
2. 무드의 개념	34
 제 3 장 연구 설계	 36
제 1 절 연구가설	36
제 2 절 측정변수	37
제 3 절 측정도구	38
제 4 절 조사방법	39
 제 4 장 연구 결과	 41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41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1
2. 표본의 특성에 대한 분석	43
제 2 절 무드의 변화분석	45
1. 무드의 차이분석	45
제 3 절 장소애착의 요인 및 변화분석.....	47
1. 장소애착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47
2. 장소애착의 항목별 변화분석	48
3. 장소애착의 요인별 변화분석	51

제 4 절 올레길 경험의 요인 및 변화분석	52
1. 올레길 경험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52
2. 올레길 경험의 항목별 차이분석	56
3. 올레길 경험의 요인별 차이분석	59
제 5 절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 및 변화분석.....	62
1.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 및 신뢰도 분석	62
2. 올레길 경험의 편익 항목별 차이분석	63
3.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별 차이분석	65
제 6 절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변수별 평균비교 분석.....	67
1. 무드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67
2. 장소애착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68
3. 자연과의 느낌 변수에 관한 비교 분석.....	71
4. 편익의 변화에 관한 비교 분석.....	73
 제 5 장 결 론	75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5
1. 제주 올레길 경험의 변수별 차이분석	75
2. 제주도민과 관광객 변수별 비교분석	76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78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80

참고문헌 82

설문지 93

ABSTRACT.....99

표 목 차

<표 2-1> 다면적 연구의 선행연구	14
<표 2-2> 여가 경험과 심리적 기능	19
<표 3-1> 연구의 측정변수	37
<표 3-2> 연구의 측정도구	38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1
<표 4-2>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43
<표 4-3> 무드의 차이분석	45
<표 4-4> 장소애착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47
<표 4-5> 장소애착의 항목별 차이분석	49
<표 4-6> 장소애착의 요인별 차이분석	51
<표 4-7> 자연과의 느낌 요인 및 신뢰도 분석	53
<표 4-8> 자연과의 느낌 항목별 차이분석	57
<표 4-9> 자연과의 느낌 요인별 차이분석	60
<표 4-10> 편익 요인 및 신뢰도 분석	62
<표 4-11> 편익 항목별 차이분석	64
<표 4-12> 편익 요인별 차이분석	66
<표 4-13>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변수별 평균비교 분석.....	67
<표 4-14>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장소애착 비교분석.....	69
<표 4-15> 제주도민과 관광객 자연과의 느낌 비교분석.....	71
<표 4-16> 제주도민 관광객 편익 비교분석	73

그림 목 차

<그림 4-1> 무드의 변화분석	45
<그림 4-2> 장소애착의 변화분석	51
<그림 4-3> 자연과의 느낌 변화분석	60
<그림 4-4> 편익 변화분석	66
<그림 4-5> 장소애착의 요인 1 ‘장소의존성’ 비교분석	69
<그림 4-6> 제주도민과 관광객의요인 3 ‘몰입감’ 비교분석.....	71

국문 초록

여가나 관광경험은 한 장의 사진처럼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즉각적인 경험의 총체라 할 수 있다(Mannell, 19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여가 경험을 실제 여가나 관광장소에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가 경험을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3시점으로 구분하여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Stewart(1992)에 의해 시도되었다.

Stewart(1998)는 여가나 관광환경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 개인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인식의 방법 등이 매우 역동적이며 즉각적인 감정이므로 혁신적인 다면적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여가나 관광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주올레길 현장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3번의 설문지로 측정하여 새로운 다면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4요인의 감정(지루한,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른), 2요인의 장소애착(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4요인의 자연과의 느낌(공존감, 소박함, 몰입감, 평온함), 2요인의 편익(정서적 안정, 특별한 경험)이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세 시점별 유의미한 차이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제주올레길 경험의 차이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스럽고 사실에 가까운 경험의 이해와 함께 보다 더 많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 여가 또는 관광경험을 제시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여가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여가는 이전의 잉여시간이나 자유시간 같은 객관적인 대상에서 존재 또는 개인의 경험과 같은 주관적인 정서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Mannell(1980)에 의하면 여가는 만족스럽고 즐거운 정서, 기분, 감정으로 구성된 긍정적인 경험의 총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Henderson(1996)은 “one size doesn't fit all”이라며, 여가 경험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여가의 개념을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즉각적이고 의식적인 경험 또는 정서라고 정의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Stewart(1992)의 연구처럼, 여가나 관광 경험을 사진 한 장과 같은 틀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정지된 경험의 개념과 방법에 의존하는 다수의 이론들에 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연구들이 있다.

“여가는 다각적인 경험이다”라고 한 Stewart(1998)의 이론은 Clawson(1963)의 이론에서 출발은 하였지만 좀 더 포괄적인 내용과 시각에서 여가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여가나 관광이 가지는 자연스런 역동적인 경험의 측면이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가나 관광경험을 다면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자들(Hull, 1990; Hull & Michael 1995; Hull, Michael, Walker & Roggenbuck, 1996; Hull, Stewart & Yi 1992; Stewart, 1992)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공간을 여러 시점으로 구분하여 즉각적인 감정인 mood를 다면적인 조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여가나 관광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재방문, 성과, 그리고 효과를 이해하는 단면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여가의 선행 요인들이 만족, 기억, 휴식, 편안함, 건강과 같은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Klausner(1967), Ingham(1986), Mannell & Iso-Ahola(1987)등과 같은 횡단면적 연구에 머물러 왔다.

또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여가 체험의 내용을 미리 가정하여 척도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가 체험의 차원을 양적으로 분류하는 데 국한된 경향이 있다. 경험이라는 과정이 역동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경험적 자료를 통해 그것의 복잡한 영향력을 확인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험이란 사전 기대나 사후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내포함과 동시에, 간접경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동우, 2005).

다만 Csikszentmihalyi(1975, 1990)의 flow이론은 여가 경험의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기록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다면적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관광지 현장에서 관광경험과 관련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소멸하기 전에 즉각적인 감정과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경험을 다면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관광경험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험에 관한 종적인 연구방법은 물론 구체적 · 이론적인 틀도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고동우, 2008).

무엇보다 관광경험이라는 주제에 지나치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나머지 양적인 기회 제공에만 머물 뿐, 관광객을 위한 관광경험의 질을 유용하게 돕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다면적 연구는 역동적이고 다각적인 여가나 관광경험을 파악하여 경험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다면적 연구는 경험을 일시적으로 반복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가까운 질적인 방법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경험의 가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여러 시점으로 분류하여 조사함으로써 신뢰도와 함께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에서의 관광경험을 다면적인 조사 방법, 즉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분하여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관광경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감정과 관광경험의 총체적인 과정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걷기 여행의 대세를 이끌고 있는 제주올레길 관광은 2007년 9월 첫 번째 코스를 개장한 이래 2010년 5월까지 총 19개 코스, 300km의 트래킹 코스로 발전하였다. 올레'는 제주 방언으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한다.

제주 올레길은 매우 단순하다.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을 찾아내, 이를 정비하여 사람들이 걷게 해 준 것이다. 제주 올레길은 새로 정비한 것일 뿐 대부분 그 전부터 있던 길이다. 원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재발견한 것이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것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동쪽의 성산일출봉에서 시작하여 서쪽 모슬포 항구까지 제주도의 남쪽해안선을 따라 총 19개 코스(2010년 5월 기준)로 이루어진 제주 올레길은 각 코스의 길이가 15~20킬로미터 이상이며, 1개 코스를 걷는 데 평균 5~6시간 이상이 걸린다. 인공적으로 코스를 만든 것은 아니고, 바닷길과 나란히 있는 오솔길을 걷다가 길이 끊기면 포장도로로 올라와 걷고 다시 오름(작은 산)을 만나면 능선을 따라 걷는 식이다.

제주 올레길 관광은 전 국민의 걷기 열풍 속에서 어느 정도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평균 17km 올레를 걷는 건 본래 대중적인 관광 행동은 아니었다. 익숙하지 않은 자연환경과 함께 마땅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5~6시간을 걷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는 것이 기존 관광객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6백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과 함께 제주 올레로 대표되는 관광 상품의 개발도 관광객 증가를 도왔다.

또한 올레는 2009년 레저 부문 최고의 히트상품이 됐다. 동아일보 산업부가 2009년 12월 9일 삼성경제연구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중 13개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한 결과 걷기체험관광인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 등이 2009년 경기 불황에도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장소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야외활동과 휴식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야외휴양활동은 정신적으로 휴식과 안정을 주고, 신체적인 활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바탕이 된다.

또한 새로운 것을 향한 신체적인 도전과 성취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자연에 관한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향후 일상생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뿐만 아니라 친구나 동료끼리 보다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여,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해 준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주 올레길 경험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 올레길의 경험을 보다 구체화하고, 어떤 체험으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개인이 주위 환경과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맺는 방식에 관한 이론적인 틀을 특정한 한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연구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으로 인해 이러한 이론적인 틀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개인의 감정과 인식은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Watkins, 2000).

그러나 본 연구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맺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하는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세 시점으로 구분하여 다면적인 방법으로 조사함으로써 연속적인 경험의 측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분한 다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과 그 느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분한 다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올레길 경험의 편익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분한 다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즉각적인 감정 상태와 장소 애착을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분한 다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제주 올레길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면적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다면적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무드와 자연과의 느낌을 변수로 채택하고, 장소애착과 편익은 실험적인 변수로 채택하였다.

다만 제주 올레길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논문 중 Wilderness와 Greenway와 같은 자연환경에서의 여가나 관광경험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연구를 통해 무드(4요인), 장소애착(2요인, 8 항목), 자연과의 느낌(4요인, 19 항목), 편익(4요인, 13 항목), 인구통계학적(9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세 가지 시점에서 설문을 받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는 제주 올레길 중 개장행사코스인 14-1코스(저지교 육회관~무릉2리 생태학교)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7코스(외돌개~월평마을)로 정하였다.

우선 14-1코스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측이 주관하는 행사로 많은 인원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단체 버스를 이용하여 출발하고, 코스를 마치는 지점에서 다시 단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 40분이 소요되는 버스 안에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었다.

7코스의 선택에 있어서는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선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화장실과 올레사무소가 출발 지점에 있어 대부분 정체하는 시간이 있었음)과 공간(편하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이 여유로웠던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2010년 4월 24일, 14-1코스 개장행사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평일 4일, 휴일 5일 동안 7코스에서 2차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총 유효표본 298개를 중심으로 무드,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 분석에서 반복측정을 통해 경험 전 설문지(I), 경험 중 설문지(II), 경험 후 설문지(III) 사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연림 경험의 역동성

1. 자연림 경험

Wilderness는 인공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상태의 산림을 말한다. 그리고 Driver *et al.*(1987)은 Wilderness를 어떤 특정한 자연 자체와 같은 대상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감정과 정서의 축적이라 하였다.

자연림의 경험과 편익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림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연림에서의 경험과 편익을 조사하는 것은 연구의 복잡성과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 거의 과학적인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자연림 경험의 구체적인 이론적 틀은 ‘Walden’의 작가 ‘Henry David Thoreau’와 같은 철학자로부터 기초적인 가치와 느낌들이 정의되었다. 이와 같은 정의들은 현재의 자연림 경험을 구체화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 몰입감(timelessness), 고독감(solitude), 공존감(oneness), 겸손함(humility), 그리고 관심(care)의 6가지 범주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거 철학자들로부터 제시된 자연림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은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 사회와 반대되는 의미로 문명이 덜 발달한 초기 사회의 자연림 같은 장소에서 옛 것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과거의 시간과 정신적인 교류를 경험

하는 감정을 뜻한다.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림에서 얻는 기쁨은 때로는 자연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험과 도전과 같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둘째, 자연림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책임과 시간의 구속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자연환경에 몰입하는 즐거움(timelessness)을 느낀다. 자연림에서 경험하는 정적감은 평화로움과 회상의 시간을 주며, 일상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잊게 해 준다. 이러한 몰입감(timelessness)은 신체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본능에 반응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신체 리듬에 따라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고, 시간이 되어서 휴식을 취하기보다 신체적인 피곤함으로 쉬는 것처럼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셋째, 고독감(solitude)은 고요한 자연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독감(solitude)은 자연림의 성격을 가장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정의이기도 하다. Hammit & Madden(1989)는 자연림에서 privacy와 solitude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도시와 동떨어진 자연림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만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여기서 소음이란 산업화된 도시의 기계음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TV, 휴대전화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넷째, 공존감(oneness)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연림 경험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로움은 자연과의 관계를 재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다섯째, 겸손함(humility)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 대자연 앞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초라함, 전율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면서 겸허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여섯째, 관심(care)은 자연립 경험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다. 결국 환경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윤리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런 환경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교육과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고, 실천 가능하다.

또한 많은 자연립 연구자들은 자연립 경험의 놀라움과 즐거움은 환경을 보전하려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매개체임을 논리적으로 연구해 왔다.

그리고 Henry David Thoreau와 같은 철학자들은 공존감(oneness), 겸손함(humility),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 등이 자연립 경험을 대표하는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Borrie & Roggenbuck(2001)의 연구에서는 몰입감(timelessness), 관심(care)과 같은 감정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감(solitude)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고, 공존감(oneness)이나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 등은 오히려 자연립 경험에서 낮게 나타났다.

Borrie와 Roggenbuck(2001)는 Okefenokee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 entry, immersion, exit의 세 시점별 wilderness의 경험 내용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80그룹을 대상으로 23일간 실시간 경험의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연립 경험의 기초를 정립한 철학자와 현대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경험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Borrie & Roggenbuck(2001)는 철학자들과 현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차이와 같은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험 중의 즉각적인 느낌과 경험 후에 회상하는 자연림의 느낌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 경험의 좀 더 구체적인 느낌과 감정의 역동성을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와 같이 세 시점의 설문지로 측정하여 다면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2. 역동성 연구

1960년대부터 Clawson & Knetsch는 야외 여가 경험을 여러 시점으로 구분하여 변화하는 경험의 감정을 다면적인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Kaunsner(1967)는 스포츠로 즐기는 낙하산 체험을 14곳으로 구분하여 각 지점마다 ‘두려움’과 ‘열정’이라는 2가지 느낌의 변화와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낙하산 체험자들은 비행기에서 점프를 하기 직전에 두려움이 커지고 열정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점프를 하고 육지에 착륙하지 전까지 가장 강한 열정을 느끼고 두려움은 차츰 줄어드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육지에 몸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다시 커지며, 착륙하여 낙하산을 몸에서 분리시킬 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최고의 열정과 역동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여가의 역동적인 경험이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면적인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 연구에서(Hull 1990; Stewart 1992; Hull Stewart and Yi 1992; Hull and Michael 1995; and Hull, Michael, Walker, and Roggenbuck 1996)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공간을 여러 시점으로 구

분하여 즉각적인 감정인 mood를 연구하였다.

Hull, Stewart & Yi(1992)는 90명의 도보여행자들을 대상으로 12지점마다 4가지 mood와 2가지 만족도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느낌을 조사하였다. 물론 잦은 조사가 여행자들의 몰입과 고독감과 같은 경험의 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험의 내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함과 흥미로움과 같은 감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여가의 가장 대표적인 욕구인 이완(relaxation)과 각성(arousal)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볼 때 이완을 대표하는 편안함(relaxed)과 각성의 흥미로움(excited)은 이론적으로 함께 발생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다면적인 측정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즉각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의 근거라 할 수 있다.

Lee *et al.*(1994)는 16명의 학생들에게 self-initiated-Tape-recording의 방법으로 구간별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여가 경험의 즉각적이고 복합적인 느낌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신체적인 여가 활동 중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서와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인 실망감, 당황, 조바심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여가 경험이 대부분 재미, 즐거움, 일탈감 같은 긍정적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이론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측정에서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 경험 중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경험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거나, 소홀하게 생각되어 온 단면적인 연구의 한계를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면적인 연구는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측정방법으로 실제 여가 경험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같은 여가의 부정적인 감정도 알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tewart(1998)도 다면적 연구에 잠재되어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장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가 환경을 여가 공급자 또는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여가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할 수 있다. 여가 환경을 좁은 안목으로 통제가 가능한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경험의 질을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연구하여 수요자에게 좀 더 나은 여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적은 표본수로도 전체 응답자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적은 수의 표본이라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응답자들은 좀 더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Walker, Hull, & Roggenbuck(1998)는 Appalachian Mountain의 여러 형태의 여가 경험자 410명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경험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여가경험 후의 효과를 우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가 경험의 효과는 수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면, 과거 연구들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긍정적 경험은 여가 경험 중에 개인의 창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경험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가의 중독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의 발생도 확인하였다.

McIntyre & Roggenbuck(1998)도 뉴질랜드에 있는 동굴에서 래프팅 체험의 감정을 다면적(5지점)으로 구분하여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위험지각, 반응력과 같은 정서와 감정 그리고 집중의 대상을 실시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가경험 중에 발생하는 즉각적인 감정과 여가 경험을 마친 시점에서 회상하는 경험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경험을 마치고 회상하는 시점에서는 개인적인 중요성과 가치가 포함되어 여가의 실제 경험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여가경험 후의 한 시점에서만 조사하는 대부분의 단면적 연구방법들은 여가경험의 사실적인 내용과 역동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 다면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표 2-1>다면적 연구의 선행연구

연구자	측정대상	방법	측정내용
Klausner(1967)	낙하산 체험자	14 지점마다	두려움, 열정
Hull <i>et al.</i> (1992)	도보여행자	12 지점마다	Mood, 만족, 자연환경
Lee <i>et al.</i> (1994)	신체적인 여가활동 체험자	SITRM(self-initiated-Tape-recording-method)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McIntyre & Roggenbuck (1998)	동굴 래프팅 체험자	5 지점마다	정서, 감정, 집중의 대상
Celsi <i>et al.</i> (1993)	스카이다이빙 체험자		카타르시스, 몰입, 정체감
Borrie & Roggenbuck (2001)	카누 체험자	3 지점마다	집중하고 있는 대상, 경험하는 느낌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3. 자연림 경험의 역동성

자연림 또는 자연림과 비슷한 환경에서도 여가의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실시간 연구하는 혁신적인 다면적 연구방법들이 시도된 바 있다.

예를 들어 Kaplan & Talbot(1983)는 자연림 환경에서의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개인적으로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는지 연구하였다. 경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술과 지식에 집중하여 자연환경에 접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성적인 묘사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경험의 중간 지점에서 자신과 자연에 관한 새로운 가치가 인식되었으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환희와 같은 감정도 경험하였다.

Scherl(1989, 1990)도 성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호주에 위치한 자연림 경험의 역동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전이 필요한 공간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스트레스나 도전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신체적 · 사회적 · 정서적인 감정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연림 경험을 마치는 공간에서 가장 높은 흥분을 경험하는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한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 시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감정들의 결과는 참가자들의 즉각적인 경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경험 후 회상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순간적인 감정일 수 있다.

Arnold & Price(1993)는 Grand Canyon 콜로라도 강에서 질적 · 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래프팅 체험의 감정을 연구하였다. 이 체험에서는 불안, 두려움, 실망, 상쾌함, 놀라움과 같은 5가지 mood가 역동적으

로 발생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확인하였다.

McIntyre & Roggenbuck(1998)은 뉴질랜드의 래프팅(rafting)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자연림 경험을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으로 실시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따른 경험의 역동성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자연과 과제(래프팅)에 관한 집중은 모든 시점에서 높은 반면 경험 내용은 환경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vehicle로 이동할 때, 모험을 준비하는 환경에서는 비교적 자연과 과제(래프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았다.

Borrie & Roggenbuck(2001)은 Okefenokee National Wildlife Refuge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지점, 중간 지점, 도착 지점의 세 시점으로 분류하여 자연환경과 상호작용 결과 발생하는 감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환경과 자아에 대한 인식이 출발지점과 비교하여 도착지점에서 높아지는 변화를 확인되었으며, 사회성은 중간지점에서 가장 낮아지는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Borrie & Roggenbuck(2001)은 이와 같은 여가 경험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결과를 이용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프로그램의 3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주(도착지점), 환경보다 자신의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범주(출발지점), 그리고 자연환경에 집중하여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범주(중간지점)와 같은 프로그램 계획에도 다면적 연구의 효능성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자연림의 역동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여가의 느낌과

mood, 집중의 대상을 역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학문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둘째, 실시간 조사 방법으로 즉각적인 감정과 몰입의 측정이 가능해졌으며 셋째, 개인의 경험과 행동은 자연환경의 배경에 따라 즉각적인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넷째, 즉각적인 여가 경험은 각 시점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 2 절 제주 올레길 경험의 편익

1. 편익의 개념

편익의 사전적인 의미는 ‘편리하고 유익함’이다. 관광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관광경험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로 관광경험의 편익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즉 편익은 어떤 기회나 참여, 경험과 같은 매개체의 개념이라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상태, 즉 ‘능력이 효과적으로 증진되거나 향상된 상태’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Driver, 1987).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여가나 관광경험을 통해 일상에서 받았던 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면 이 사람이 가진 심리상태가 편익이며, 스트레스의 해소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여가나 관광경험이 가져다 준 편익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육체적 · 생리적 편익(Ulrich et al., 1990), 심리적 편익(Driver et al., 1987), 교육적 편익(Roggenbuck et al., 1990), 정신적 편익(McDonald & Schreyer, 1991)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가는 개인을 일상으로부터 해방시켜 폭넓고 자유로운 사회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Roggenbuk & Loomis(1990)는 미국인들의 여가활동을 통한 편익 중 특히 학습의 기능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여가의 학습기능은 행동변화와 기술학습 기능, 직접적인 가시적 기억 기능, 학습형성 기능, 발상학습 기능, 도해학습 기능 그리고 인식 학습 기능, 태도학습 기능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Phallip(1997)은 99명의 중산층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107명의 유럽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종, 성별, 그리고 여가에 대한 혜택을 기초로 검토한 결과 여가기능을 휴식, 교육, 심리적, 기분전환, 자기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존경이라는 요소로 분류하였다.

여가경험과 심리적 기능의 해외 선행연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2>여가 경험과 심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	내용	연구자
정서적	여가 경험과 정서적 상태 관계	McCormick, Funderburk, Lee & Hale-Fought(2005)
	여가활동의 자기경험과 스트레스 완충 관계	Coleman & Iso-Ahola (1993)
	아이들의 놀이와 정서적 스트레스 관계	Barnett(1984)
	여가 경험과 스트레스 완충효과	Iwasaki & Mannall(2000)
	flow 이론	Csikszentmihalyi(1990)
인지적	아이들의 놀이 능력	Russel(1996)
	여가활동 경험과 자기 존중감	Dattilo, Dattilo, Smdah & Kleiber(1994)
	여가활동과 자기 존중감	Shary & Iso-Ahola(1989)
사회적	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능력 향상	성영신 등(1996) Driver <i>et al.</i> (1991) Mannell & Kleiber(1997) Russell(1996)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여가기능이라 함은 개인이 자신의 여가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어떠한 유형의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조명환, 2007).

관광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고동우(2008)는 주말여행을 통한 심리적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말여행을 다녀온 실험 집단과 주말 여행을 하지 않는 통제 집단 간의 심리적 상태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주말여행을 한 실험집단에서 정서, 여행용기, 사교능력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해외수학여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수학여행 전과 수학여행 후의 심리적 상태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확인하였다(고동우, 2009).

2. 자연림 편익

Kaplan *et al.*,(1998)에 의하면 자연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정신적인 피로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자연환경은 경험하는 사람의 기분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Ulich, Dimberg & Driver, 1990).

Kaplan & Talbot(1983)이 환자와 사무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연환경이 보이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며 또한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신체조건 향상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물론 과한 외부자극이 심리적으로 과중함을 증명한 연구도 있으며, 외부자극이 거의 없을 때 지루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에서 다양성을 매우 강하게 선호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자연환경의 요소들을 잘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환경을 이해하여 안정하려는 욕구와 모험심을 자극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모험심을 갖게 하려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내용(나무, 길, 벤치 등)을 관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의 자연을 좋아함과 동시에 익숙함이 지루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당한 모험심을 자연환경에서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미시간대학의 환경심리학자인 Kaplan *et al.*,(1998)은 자연에 관한 다양한 사진과 슬라이드를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고 각 사진과 슬라이드에 관한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진 안의 자연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두려움과 선호도가 변화하는 구체적인 자연환경의 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두려움과 선호유형: 담(wall) 또는 우거진 숲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인적이 드문 환경에서는 대부분 두려움을 느끼는 반면, 지표면이 부드럽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환경, 시야가 넓게 확보되고 새로운 환경이 많이 보이는 개방된 자연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길 찾기: 대부분의 자연환경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정서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고적감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적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흔적으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길 표시를 적당히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관리가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회복효과의 자연환경: 조용하고 황홀한 상태의 정신적인 휴식은 자연환경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걷기, 낚시, 정원손질과 같은 경험들은 자연 안에서 피곤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activities이다. 산만한 일상에서 동떨어진 자연환경은 사적인 공간의 제공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며, 오래된 나무와 돌과 같은 천연자연 재료들은 편안한 정신적인 회복을 돕는 요소이다. 심지어 병원이나 도시 사무실의 공간에서도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

들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 길의 유형과 이동력: 길은 적당히 우거진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며, 나무나 돌 그리고 다리와 같은 특별한 재질로 길을 관리함으로써 편안함을 주고, 벤치를 커다란 나무로 장식하여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3. 편익의 요소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et al.*(2008)이 국립공원을 방문한 근거리, 원거리 거주자 경험의 편익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6가지(health, social interaction, learning, achievement, solitude, enjoy nature) 편익요인 중 건강(health), 사회적 관계(social interaction) 경험하며 배우기(learning), 성취감(achievement)의 4가지 요인으로 제주 올레길 경험의 편익을 측정할 것이다.

1) 건강(health)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신체 활동으로 인한 건강의 긍정적인 결과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이와 같은 건강의 긍정적인 결과는 신체적인 활동의 양과 비례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공원을 비롯하여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여가 또는 관광의 물리적인 환경들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활동을 돕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활동과 건강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의 어떤 속성들이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지에 관한 연구(Bedimo-Rung, Mowen, & Cohen, 2005), 그리고 공원과 같은 여가

관리 선행연구에서 어떤 개념과 방법들이 신체적인 활동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Godbey, Caldwell, Floyd, & Payne, 2005).

Sarah *et al.*(2000)은 Wilderness와 같은 구체화된 여가환경에서 긍정적인 자연림 경험이 특히 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유능감, 주도권, 자유감, 독립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성들이 자연환경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은 관습적으로 부과된 성의 역할에서 해방감을 느껴, 일상과 동떨어진 자연 환경에서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연림 경험은 새로운 신체적인 도전과 성취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부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험들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즉 자연림 경험은 친구나 동료끼리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 준다.

여가활동은 저소득 또는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여성일수록 우울증과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여가활동의 선행조건으로 저소득과 직업의 불만족과 같은 삶의 질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Milena *et al.*(2000)은 브라질의 빈곤 지역인 Salvador 여성 4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여가활동의 유무와 유형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소

득과 직업의 만족도가 낮은 여성들 중 여가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소득과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물론 여가활동의 적은 참여율은 빈곤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 여성, 기혼 여성,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가장의 역할을 하는 여성일수록 여가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여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Kaczynski & Henderson(2007)가 강조하였듯이 우리 주변의 공원이나 여가의 물리적 환경이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민의 신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사회적 관계(social interaction)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정신적 · 신체적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의 문제들과 더욱 관련이 높다. 그러나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며 파생된 동료애, 우정과 같은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의 방패막이 되어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Iso-Ahola & Park(1996)은 Washington D. C.에 위치한 10개 태권도 수련원 252명을 표집하여 태권도라는 특정한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태권도에 참여하게 된 내재적 동기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태권도에 참여하게 된 사회적 지원은 정신적 · 신체적 건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

다. 여기서 사회적 지원은 leisure-companionship, leisure-friendship처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가족, 동료, 친구들의 무형적이고 정서적인 배려와 격려를 의미한다. 전자(leisure-companionship)는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행동중심의 지원이며, 구체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시켜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자(leisure-friendship)는 여가활동에 대한 정서적인 친숙함 같은 태도중심의 지원이며 신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골프나 테니스를 동료와 함께 즐김(leisure-companionship)으로써 사회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울함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친한 친구의 조언(leisure-friendship)으로 골프나 테니스의 기술을 높여 신체적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

반면 Coleman(1993)은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사회적 지원보다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된 지각된 자유감이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Coleman은 일반적인 여가를 대상으로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고, Iso-Ahola는 태권도라는 특정한 여가활동을 표본으로 조사함에 따른 차이로 할 수 있다. Iso-Ahola(1996)에 의하면 자신의 여가에 관해 통제력과 자유감이 부족하여도 특정한 여가활동(태권도)에서 얻는 무형의 사회적 지원도 정신적 · 신체적 질병의 중요한 대처법이며, 여가의 내재적 동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위험성에 대하여도 경고하였다.

물론 무형의 정서적 · 사회적 지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 Click & Roberts(198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류를 병행하는 여가활동은 때때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감과 통제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인 교류가 따르는 여가활동

의 부정적인 측면을 증명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동료애와 우정은 정서적인 지원과 함께 스트레스를 문제의 중심으로 대처하여 마음의 휴식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Iso-Ahola, 1996).

그리고 Iwasaki *et al.*(2006)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당뇨병, 장애인, 동성애자들과 같은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들도 신체적 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정신적 · 사회적 · 문화적 여가활동(active leisure)도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질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가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방법들은 여가의 효과적인 편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경험하며 배우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참가자, 고객, 소비자와 같은 행위자 경험 중심의 경영적 성과는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Gary, D. E, 2008). 이와 같은 경험중심의 산업에서는 무엇보다 고객에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기억과 정서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관광과 여가환경은 정해진 공간에서 고객에게 잊지 못할 기억과 정서를 심어주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경험 마케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 상품인 Ford Motor Company에서 Hawaii Community Hospital까지 모든 산업에서 경험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케팅 세계에서 소비자의 경험이 중요시되는 이유와 관광산업에서 경험 마케팅의 방법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험경제란 특별한 기억과 정서를 경험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신체적 · 사회적 · 심리적 소비를 행하는 것이라고 짧게 정의내릴 수 있다.

경험경제는 Pine & Gilmore(1998)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Pine & Gilmore는 서비스는 자신의 편의를 위한 공급자의 행위를 구입하는 반면, 경험경제는 추억이 될 만한 강력한 느낌의 경험을 위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방식으로 공급된 장소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광고, 대중매체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상품의 한 부분이 되어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은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주며 어떤 상품을 결정할 때 도움을 준다.

관광은 오랫동안 서비스 산업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산업의 형태가 변하는 것처럼 시대는 변하고 제조품과 서비스가 다르듯이 경험도 서비스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지 적극적인 참여의 경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동적인 서비스 영역의 한 가지로 취급되어 왔다.

서비스와 경험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구매했다면 그는 자신을 위해 실행되는 일종의 무형적 활동을 구매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경험을 구매했다면, 그는 고객 참여가 가능하도록 꾸며진 무대에서 벌어지는 즐겁고 인상적인 이벤트 시간을 구입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은 경험산업이라 말할 수 있다

관광이나 여가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경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Disney Land의 신데렐라 성의 경우, 특별한 경험

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에서도 경험이 중요한 상품의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식사를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억과 정서를 주기 위하여 모든 종업원이 신데렐라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복장과 역할을 담당하여 ‘특별한 경험’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그 결과 고객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경험으로 인하여 쉽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받는다.

이와 같은 경험경제의 성과는 공원, 여가환경 관리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요소로 하는 자연 그대로의 관광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자연과 정서적으로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물리적인 시설보다 무형의 정서적인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Debra *et al.*(2008)는 자연과 같은 환경적인 속성을 가진 공원에서 사람들이 환경과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맺는 무형의 과정(meaning-making)과 그 것을 통해 얻게 된 효과(meanings)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해방감, 휴식과 같은 동기 요소로 공원을 찾으며, 경험하는 과정 중 개인적인 의미(아름다움, 해방감, 휴식, 배움, 자부심)와 사회적인 의미(가족과 친구와의 교감)를 복합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Memory-making을 얻게 되는 경험을 essay형식의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연관성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적이 드문 자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연환경의 습도나 온도에서 오는 불편함(Bixler & Floyd, 1997; Patterson *et al.*, 1998) 등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Stedman(2003)도 사람과 자연환경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방법으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장소에 대한 감성적인 정서가 중요한 상호작용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Hutson(2007)도 자연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의 장점을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야외휴양경험은 사람들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둘째, 자연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셋째, 자연과의 교감은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주장하였다.

4) 성취감

스트레스는 특히 외부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이 많고 모험을 요구하는 여가활동에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이다.

안대희 · 유도재(2005)는 해외여행 관광객들은 여행 전 예상했던 스트레스보다 여행 후 경험한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관광의 부정적인 정서인 스트레스를 확인하였다.

조상희(2006)의 연구에서도 관광객의 가치관에 따라 해외여행 중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목적지와 여행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행은 집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에 일시적인 적응을 하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행우(2004) 등은 여행은 필수적으로 이동에 따르고, 다른 문화에 적응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조남근 · 양돈규(2001)도 장거리 여행 시 이동시간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설명하였다. 즉 여행객들은 장시간 이동 시 느낄 수 있는 무료함에서

스트레스가 따를 수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은 신체적인 활동과 함께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산, 낚시, 스키, climbing, rafting, canoeing은 대표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여가라 할 수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은 전형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신체적인 활동에 도전하며, 사회적 · 심리적 · 신체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위험이나 위기를 인식하여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에서 스트레스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여가활동으로 인한 자신감, 자기 효능감, 사회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주로 연구하였다. 여가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성취감에 대한 생리학적인 반응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Sarah *et al.*(2000)은 사람들이 여가활동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적인 건강과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분비되는 신경 내(內) 물질인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비 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여가활동 중 도전과 위기 상황에서도 낮게 분비되었다. 반면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더 많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기적인 신체적 운동을 통해 자신의 체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여가활동 중 도전과 위기의식을 덜

느껴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는 데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자연환경에서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긴장을 줄이고 모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연환경의 관리적인 측면을 증명한 연구들도 있다(Kaplan *et al.*, 1998).

제 3 절 제주 올레길 경험의 장소애착과 무드

1. 장소애착의 개념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란 ‘한 개인과 특정 장소의 정서적 또는 감성적인 관계’라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한 장소와 오랜 기간 인연을 쌓아온 결과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Moore & Graefe, 1994; Tuan, 1977).

수 년 동안 사람과 장소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가설이 세워지고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들로는 장소애착(Low & Altman, 1992; Williams *et al.*, 1992), 장소의 의미(Stedman, 2002), 장소 정체성(Twigger-Ross & Uzzell, 1996), 장소 의존성(Stokols & Shumaker, 1981)등이 있다.

Stokols & Shumaker(1981)는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장소 의존성’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장소와의 관계를 지각하는 강도라 정의할 수 있다. 그는 지속성과 빈도가 장소 의존성을 형성

하는 중요한 선행조건임을 주장하였지만, 장소가 개인의 특별한 요구나 필요를 좀 더 채울 수 있는 기능적이고 질적인 양상의 개념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정서적인 경험은 장소 의존성의 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장소애착은 ‘장소 정체성’과 ‘장소 의존성’ 두 가지 요인으로 사람들이 장소와 가지는 관계를 정의하지만, 그보다 ‘장소의 의미’(sense of place)가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장소와의 관계를 뜻한다는 새로운 주장도 최근에 제시되고 있다(Farnum *et al.*, 2005).

즉 한 개인이 장소에 가지는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소에 부여하는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까지 장소애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람과 장소의 개념은 개인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장소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늘어나는 시간과 경험으로 인해 장소애착이 강해진다고 주장했으나(Moore & Graefe, 1994; Tuan, 1977),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어떻게’ 그리고 ‘왜’ 시간이 장소애착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도 거의 없다.

즉 양적인 시간이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이론적으로 주장할 뿐 시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소홀하였다(Smaldone *et al.*, 2008).

Schroeder(1991)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정서적인 상호관계가 특정한 장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를 보고 감성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반응을 가리켜 장소애착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다. Schroeder(1991)는 ‘preference’와 ‘meaning’의 개념을 예로 들며 장소애착 감성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preference’는 단순히 다른 장소에 비해 특별한 장소를 더 선호하는 정도이며, 반면 ‘meaning’은 생각, 감정, 기억, 장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감성을 의미하며 장소애착은 ‘meaning’에 의해 보다 더 깊게 형성됨을 주장하였다.

‘meaning’은 여가 환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meaning’은 다양한 여가 경험으로 인한 개인의 가치와 만족도 형성과정에서 넓게 정의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Ellis & Rossman(2008)은 ‘meaning’의 요소인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정서들은 특정한 경험을 하기 전 동기 상태에서, 그리고 경험하는 중에도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편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meaning’도 Stewart(1998)의 이론처럼 모든 여가 경험에서 즉각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감정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Stedman(2003)도 장소애착은 한 개인이 특정한 장소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며, 장소애착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감정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소애착은 특정한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얻는 긍정적인 감정의 강도에 따라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고, 더욱 강렬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소애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 Vitterso et al(2001)는 장소애착이 강할수록 단순히 편안함과 같은 감정만을 느끼는

반면, 현재 활동의 목표에 대한 집중이 강할수록 재미, 도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몰입의 경험에 쉽게 노출되었다. 즉 자연환경에서 여가활동 중에 장소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은 환경에 쉽게 동화되어 강도가 있는 신체적 활동의 요구에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장소애착의 부정적 측면을 확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 무드의 개념

무드란 보통 충만한 감정 상태라고 짧게 정의내릴 수 있다. 즉 어떤 주어진 순간에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상태이다(Hull, 1991).

여가학자들은 보통 여가란 만족감과 즐거운 무드, 정서, 감정이 뒤따르는 긍정적인 경험이라 정의한다(Mannell, 1980).

또한 무드는 경험의 시점별로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생한 감정이라 하였다(Hammit, 1980; Hull & Michael, 1995; Hull *et al.*, 1996).

따라서 무드는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여가 경험의 질을 신뢰 있게 또한 타당한 방법으로 제시할 지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Klausner(1967)도 낙하산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낙하산을 착용하고 뛰어 내리는 순간에 가장 강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땅에 착륙하여 낙하산 장비를 내려놓는 순간 가장 강한 열정을 느끼는 무드의 역동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Hammit(1980)는 여행 중에 변화하는 무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주로 여행지까지 가는 시간과 여행 중에 긍정적인 무드가 증가하였으며, 돌아오는 시간과 회상시에는 긍정적인 무드가 줄어드는 과정을 확인하여 무드의 역동적인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어떤 무드의 상태는 여가 활동 내내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Hull *et al.*(1992)의 연구에서 rushed(서두르는)와 같은 상태는 당일 코스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감정의 상태였다.

물론 무드의 상태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낙하산 경험자(Klausner, 1967)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래프팅 경험자들은 (Arnold & Price, 1993) 속도가 있을 때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 *et al.*(1992)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가경험자들의 실망, 혼란, 죄의식,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무드도 여러 경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환경적인 요인과 활동 배경에 따라 무드가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Hull *et al.*,1992). 예를 들어 울창한 나무들로 시야가 가리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지루함을 자주 느끼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배경으로 인하여 편안함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Hull & Michael(1995)는 도시를 걷는 학생들에 비해 시골길을 걷는 학생들이 안정감과 흥미로움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과거 연구를 통해 여가 경험과 무드상태의 상호작용 방식에 관한 4가지 특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어떤 무드의 상태는 여가 경험 중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감정이다. 둘째, 무드는 특정한 패턴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셋째, 무드는 환경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넷째, 여가 경험 중에 발생하는 무드의 상태는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제주올레길 경험의 역동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세 시점으로 구분한 설문지를 동일한 사람에게 올레코스가 시작되는 지점, 중간지점, 종료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다면적 연구 방법은 즉각적인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가설 1. 제주올레길 경험의 즉각적인 감정상태(mood)는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제주올레길 경험의 장소애착은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제주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은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제주올레길 경험의 편익은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제주올레길 경험의 무드,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제주 올레길 경험의 다면적 연구 방법에 측정되는 변수는 총 4개이며, 즉각적인 감정상태(mood),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각 변수별 기준에 적용되었던 연구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연구의 측정변수

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기존연구자	본연구 측정요인
무드	*즉각적인 감정상태	*지루한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르는	*Hull <i>et al.</i> (1994)	*지루한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르는
장소애착	*인간이 특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가지는 관심, 교감.	*장소 의존성 *장소 정체성 *장소 친밀성 *장소 귀속성 *장소 정착성	*Moore & Graefe (1994)	*장소 의존성 *장소 정체성
자연과의 느낌	*인공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상태의 산림에서의 경험	*Oneness *Timelessness *Solitude *Care	*Borrie & Roggenbuck (2001)	*Oneness *Timelessness *Solitude *Care
편익	*인간이 자연환경 으로부터 받는 혜택	*Health *Social Interaction *Learning *Solitude *Achievement	*Anderson <i>et al.</i> (2008)	*Health *Social Interaction *Learning *Achievement

제 3 절 측정도구

제주 올레길 경험의 4가지 변수인 즉각적인 감정상태,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의 각 요인별 문항에 대하여 구성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3-2 연구의 측정도구>

구분(항목수)	측정항목(항목수)	출처
개인적 특성 (9)	올레길 경험 횟수	
	거주지역	
	성별	
	나이	
	동반유형	
	동반자 수	
	일정기간	
	학력	
	직업	
즉각적인 감정상태 (4)	지루한	Hull <i>et al.</i> (1994)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르는	
장소애착(8)	장소 의존성(4)	Moore & Graefe (1994)
	장소 정체성(4)	
자연과의 느낌 (19)	Oneness(11)	Borrie &Roggenbuck (2001)
	Timelessness(3)	
	Solitude(3)	
	Care(2)	
편익(13)	Health(4)	Anderson et al (2008)
	Social Interaction(3)	
	Learning(3)	
	Achievement(3)	

제 4 절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제주 올레길 경험의 역동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올레길 코스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경험 전(I) 설문지를 측정하고, 올레길 코스 중간 지점에서 경험 중(II), 코스 종료 지점에서 경험 후의 설문지(III)를 동일한 사람에게 조사하는 다면적인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14-1 개장코스 행사에서 129부를 회수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코스인 7코스에서 210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4월 24일 토요일에 14-1 개장코스 행사에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9일간 7코스에서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의 시간적 범위가 비교적 짧은 이유는 2010년 3월과 4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온도가 평년에 비해 낮았으므로,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되는 5월 연휴를 이용하여 평일(4일)과 주말 동안(5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타당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동일한 사람에게 3번 설문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기꺼이 응해주는 올레길 방문자가 비교적 많았다는 점도 실험적인 다면적 연구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차 설문조사 장소인 14-1 코스의 개장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편의적으로 올레길 방문자에게 제공한(왕복 5000원 별도) 버스가 정해진 장소에서 단체로 출발하고 도착하였다. 따라서 이동에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버스에서 경험 전(I), 경험 후(III)의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었다. 개장코스여서 마땅한 음식점이 준비되지 못한 관계로

중간지점인 ‘오설록 차 전시관’(출발 후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 잔디밭에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준비한 점심을 먹기 때문에 경험 중(II)의 설문지 작성에 가능한 시간과 공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

2차 설문조사 장소인 7코스에서는 시작 전 ‘외돌개’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올레지기 사무국 근처에서 설문을 작성하기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 대부분 직접 부락을 하였으며, 중간 지점에서는 풍림리조트(출발 후 약 2시간 30분소요)에서 경험 중 설문지(II)를 조사하였고, 마지막 지점은 월평마을 ‘송이슈퍼’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 7코스 마치는 지점으로 알고 있는 ‘월평포구’에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후(III)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물론 경험 전(I), 경험 후(III)의 설문지는 거의 조사자 앞에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경험 중 설문지(II)는 시간적인 차이로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한 표본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나, 각 3번의 설문지마다 현재 시간을 정확하게 직접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 기꺼이 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질적인 설문 조사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1차에서 129부, 2차에서 210부를 합한 총 339개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무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298개의 유효 표본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인구 통계학적 특성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298개의 유효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n=298)	퍼센트(100%)
성별	남성	136	45.6
	여성	164	54.4
연령	20~29세	59	19.8
	30~39세	55	18.5
	40~49세	96	32.5
	50세 이상	88	29.5
학력	고등학교 졸업	80	26.8
	대학교 재학	18	6.0
	대학교 졸업	176	59.1
	대학원 졸업	24	8.1
직업	학생	25	8.4
	회사원	62	20.8
	공무원	42	14.1
	주부	56	18.8
	전문직	48	16.1
	농수산업	1	0.3
	판매/서비스업/운수업	7	11.4
	기타	30	10.1
결혼여부	미혼	104	34.9
	기혼	191	64.1
	기타	3	12.8

성별 분포는 남성이 136명(45.6%), 여성이 162명(54.4%)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9명(19.8%), 30대가 55명(18.5%), 40대가 96명(32.5%), 50대가 76명(25.5%), 60대가 12명(4.0%)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172명으로 표본의 58%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40대는 정신적인 성숙과 함께 신체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이기도 하다.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80명(26.8%), 대학교 재학이 18명(6.0%), 대학교 졸업이 176명(59.1%)으로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은 24명(8.1%)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이 62명(2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 주부가 56명(18.8%), 전문직이 48명(16.1%), 공무원이 42명(14.1%), 판매/서비스업이 34명(34.1%), 기타 30명(10.1%), 학생이 25명(8.4%)이었다.

2. 표본의 특성에 대한 분석

총 유효표본 298명의 올레길 경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조사하였다.

<표 4-2>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항목	빈도(n=298)	퍼센트(100%)
올레길 경험 횟수	1회	170	55.7
	재방문	135	44.3
동반유형	혼자	34	11.4
	가족과 함께	107	35.9
	친구와 함께	119	39.9
	기타	38	12.8
동반자 수	없음	34	11.4
	1명	78	26.2
	2명	38	12.8
	3명	30	10.1
	4명	33	11.1
	5명	18	6.0
	6명이상	67	22.5
거주지역	국외	3	1.0
	제주도	103	34.6
	제주도 이외지역	192	64.4
일정	당일	103	34.6
	1박	53	17.8
	2박	56	18.8
	3박	46	15.4
	4박 이상	40	13.4

우선 올레길 경험 횟수로는 1회가 170명(55.7%)이며 2회 이상 재방문이 135명(44.3%)으로 나타났다. 재방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

은 횃수의 올레길 경험자가 50회로 2명이 있었으며, 10회 이상도 15명(5.0%)의 분포를 나타냈다. 동반 유형을 살펴보면 친구와 함께 올레길을 걷는 사람이 119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걷는 사람이 107명(35.9%), 혼자서 올레길을 방문한 사람도 34명(11.4%)이나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민 103명(34.6%)을 제외한 212명(65.4%)이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별로는 당일이 103명(34.6%, 제주도민), 1박이 53명(17.8%), 2박이 56명(18.8%), 3박이 46명(15.4%), 4박 이상이 40명(13.4%)의 분포를 나타냈다. 당일을 제외한 1박 또는 2박처럼 짧은 일정이 109명(36.6%) 정도로, 일정이 짧아지는 관광의 패턴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와 같은 짧은 일정의 방문객들은 제주도 올레길 경험만을 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추정할 수 있어, 올레길이 제주도 관광수요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제 2 절 무드의 변화분석

1. 무드의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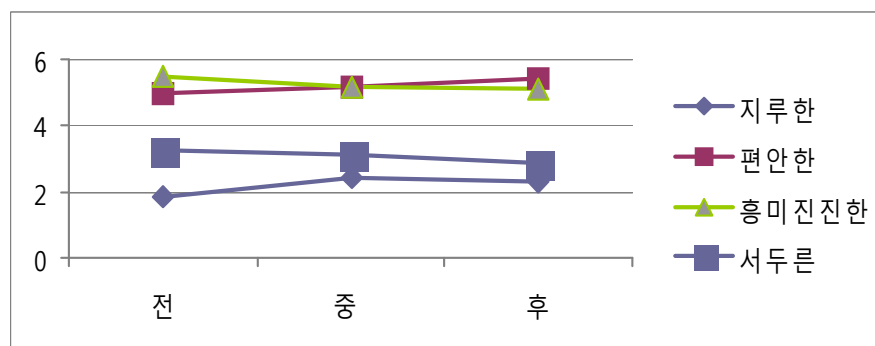
제주 올레길 경험의 무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루한(bored), 편안한(relaxed), 흥미진진한(excited), 서두르는(rushed) 감정의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무드의 평균값을 기술통계로 구하고, 평균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 분석방법에서 반복 측정을 통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의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다.

〈표 4-3〉 무드의 차이분석

항목	전	중	후	withi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 값
지루한	1.85	2.43	2.31	15.08**	0.000
편안한	4.95	5.14	5.40	8.54**	0.000
흥미진진한	5.46	5.16	5.11	7.19*	0.001
서두르는	3.27	3.11	2.90	4.97*	0.007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1〉 무드의 변화분석



우선 올레길 경험의 즉각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무드는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평균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루함과 편안함의 감정은 유의도(Sig.)가 $p < 0.001$ 으로 본 일반선형모형(GLM)분석 모형은 타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루함의 감정은 경험 전에 평균=1.85로 제일 낮았으며 경험 중에 가장 높은 평균=2.43을 보였다. 올레길은 대부분의 코스가 시작지점에서 마치는 지점까지 평균 5시간을 걸어야 하는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경험이므로, 중간지점에서 신체적인 피로로 인해 다소 지루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흥미진진함이 경험 전에 비해 평균=3.27에서 평균=3.11로 낮아지는 현상도 동일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안함의 감정은 경험 전(I) 평균=4.95에서 경험 후(III) 평균=5.14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신체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감정들이 편안한 감정으로 표현되어 오히려 평균 5시간 정도의 신체적인 활동에도 경험 후 가장 높은 편안함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자연을 느끼며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여가 경험은 중간에 신체적인 피로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고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이 같은 활동들이 최종적으로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체적인 피로 회복에도 영향을 미쳐 편안함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서두르는 감정은 편안함과 가장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경험 전(I)에 평균=3.27로 가장 높은 서두름의 감정을 느끼며 점점 경험 후(III) 평균=2.90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서두르는(rushed) 감정은 일

상의 책임에 구속되어 부담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올레길을 경험할수록 일상의 책임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서두르는 감정도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장소애착의 요인 및 변화분석

1. 장소애착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변수인 장소애착의 항목별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장소애착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8개)	요 인 적 재 량	고 유 치	분산 설명력 (%)	공 통 치	평균
장소 의존성 ($\alpha=0.911$)	1. 올레길은 다른 장소와 비교할 수 없음	0.83	3.13	39.16	0.74	5.01
	2. 올레길은 최상의 장소	0.84			0.79	5.53
	3. 올레길은 다른 장소와 맞바꿀 수 없음	0.86			0.84	5.14
	4. 올레길은 어떤 관광지에서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줄 것임	0.77			0.79	5.34
장소 정체성 ($\alpha=0.891$)	5. 올레길은 나의 일부와도 같은 곳이 될 것임	0.74	3.07	38.48	0.70	4.63
	6. 올레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함	0.84			0.78	5.24
	7. 올레길 경험으로 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임	0.85			0.78	5.14
	8. 올레길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됨	0.81			0.74	5.13

위와 같은 결과로 장소애착에 관해서는 2개 차원 8개의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명은 과거 연구들과 동일하게 ‘장소 의존성’과 ‘장소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총 유효 표본 298명은 사회과학에서 지정한 300명의 표본 크기에 거의 부합하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위한 자료로 충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애착의 요인 구조는 연구 방법 절에서 미리 가정하였던 차원과 거의 유사하며, 장소애착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기초로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장소애착의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장소 의존성이 0.911, 장소 정체성이 0.891로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고유치가 모두 1이 넘으며, 공통치도 0.5를 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만족감과(문항 4) 의미(문항 6)를 묻는 항목의 평균값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소애착은 시간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만족감과 의미(meaning)와 같은 요인이 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장소애착의 항목별 변화분석

제주 올레길에서 장소애착의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차이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 분석 방법에서 반복측정을 실행하여 세 가지 시점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4-5> 장소애착의 항목별 차이분석

요인	문항 (7점 척도)	평균			withi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 값
		전	중	후		
장소 의존성	1. 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5.01	5.31	5.53	19.66**	0.000
	2. 제주 올레길은 최상의 관광장소가 될 것이다	5.53	5.55	5.69	2.27	0.104
	3. 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과 맞바꿀 수 없을 것이다	5.14	5.38	5.49	9.63**	0.000
	4. 올레길은 어떤 관광지에서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줄 것이다.	5.34	5.51	5.70	9.24**	0.000
장소 정체성	5. 올레길은 나의 일부와도 같은 곳이 될것이다.	4.63	4.92	5.11	15.48*	0.000
	6. 올레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5.24	5.18	5.51	9.55**	0.000
	7. 올레길 경험을 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14	5.18	5.39	4.72*	0.009
	8. 나는 올레길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5.13	5.34	5.54	12.82**	0.000

주:* $p<0.5$, ** $p<0.01$, *** $p<0.001$

문항 2와 문항 7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p<0.001$ 보다 적은 유의도를 보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별 장소애착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모집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2번인 ‘제주 올레길은 최상의 관광장소가 될 것이다’의 F값이 가장

낮게 2.27을 나타냈다. 즉 표본의 103명의 제주도민은 문항 2에서 익숙한 자연환경의 올레길을 관광장소로 인식하지 않으며, 대조적으로 관광객은 고유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제주도를 최상의 관광장소로 인식한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집단 내 분산이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F값이 낮게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장소애착의 요인별 변화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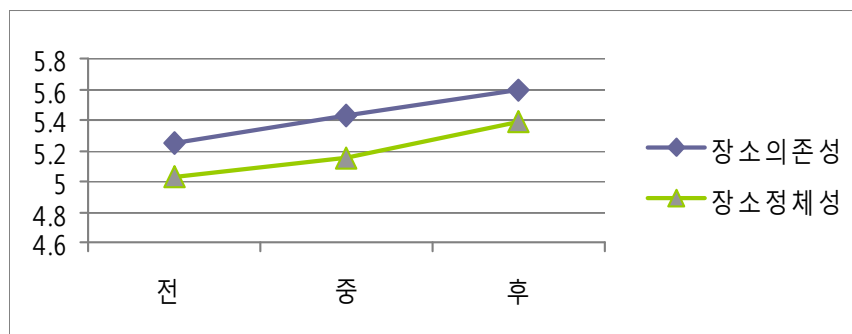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장소애착을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의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차이와 변화를 알아본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장소애착의 요인별 차이분석

	요인	평균			withi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 값
		전	중	후		
1	장소의존성	5.25	5.43	5.59	12.75**	0.000**
2	장소정체성	5.03	5.15	5.38	13.97**	0.000**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2> 장소애착의 변화분석



장소애착의 2가지 요인은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시점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2가지 요인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을 방문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장소 의존성, 장소 정체성은 올레길 경험을 통하여 더욱 높아지며,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신체적인 활동(걷기)으로 인하여 흥미로움이 적어지고 지루함이 경험 전에 비해 높아지는 중간 지점에서도 장소애착의 2가지 요인은 모두 높아지고 있어, 올레길 경험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의 질을 측정할 수 있었다.

즉 이와 같은 다면적 연구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광이나 여가 경험 중에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관적인 감정을 다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제 4 절 올레길 경험의 요인 및 변화분석

1. 올레길 경험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3번째 변수인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의 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총 19개 문항이 4가지 요인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표 4-7>자연과의 느낌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요인 (4개)	문항 (19개)	요인 적재 량	고 유 치	분산 설명력 (%)	공 통 치	평균
공존감 ($\alpha=0.908$)	1.자연의 일부임을 느낌	0.73	5.01	26.38	5.23	5.23
	2.자연과 특별한 친밀감을 느낌	0.72			5.37	5.37
	3.자연에 완전히 몰입됨	0.61			5.06	5.06
	7.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류	0.71			5.20	5.20
	8.지구가 활기있게 살아있음을 느낌	0.78			5.26	5.26
	9.자연의 창조물에 경외감을 느낌	0.77			5.43	5.43
	10.자연의 모든 것에 겸허함을 느낌	0.73			5.41	5.41
	11.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초라함	0.40			4.20	4.20
	18.이 장소를 소중히 여김	0.52			5.95	5.95
	19.이 장소에서 올바른 행동을 원함	0.43			5.92	5.92
소박함 ($\alpha=0.773$)	4.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	0.55	2.19	11.54	4.56	4.56
	5.삶이 단순함을 느낌	0.85			5.38	5.38
	6.삶이 소박하다는 것을 느낌	0.72			4.98	4.98
몰입감 ($\alpha=0.839$)	12.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걱정	0.87	2.39	12.61	5.46	5.46
	13.현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걱정	0.83			5.31	5.31
	14.식사시간에 대하여 걱정	0.80			5.33	5.33
평온함 ($\alpha=0.759$)	15.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자유로움	0.65	3.27	17.23	5.02	5.02
	16.이 장소에서 평화로움을 느낌	0.82			5.77	5.77
	17.이 장소에서 고요함을 느낌	0.73			5.52	5.52

Borrie & Roggenbuck(2001)이 질적 연구를 통해 제시한 Wilderness 경험 척도 가운데 19개 문항, 4개 요인차원(공존감, 고독감, 몰입감, 관심)을 측정도구로 제주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을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 조금 다른 4개의 요인(공존감, 소박함, 몰입감, 평온함)으로 구분되었다.

총 19개의 항목 중 요인별로 부하량이 0.50이상이며 다른 요인에는 0.30 이상으로 부하되지 않은 문항들을 추출하였으며, 동시에 신뢰도 값을 낮추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공존감의 19번째 문항인 ‘현재 장소에서 정당한 행동’은 요인 부하량이 0.437로 낮았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 Alpha값이 0.908로 신뢰도 값을 낮추지 않으므로 공존감 요인 문항에서 제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Borrie & Roggenbuck(2001)의 연구에서 요인은 총 19개의 문항들이 공존감(oneness), 몰입(timelessness), 고독감(solitude), 관심(care)과 같이 4개의 요인차원으로 구분되었으나, 올레길 경험의 자연과의 느낌을 요인 분석한 결과 조금 다르게 구분된 총 4개의 요인에 대하여 공존감, 몰입감, 평온함, 소박함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인분석을 살펴보면 ‘공존감’은 올레길 경험 중에 느끼는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하며, 속살 그대로의 제주도의 자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측정하고자 조사되었다. 그러나 Borrie & Roggenbuck(200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경험의 이론적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과거의 철학자들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Wilderness 경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Walden’의 작가 ‘Henry David Thoreau’와 같은 철학자들은 자연과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또는 매우 문학적으로 회상하여 다소 극단적인 느낌의 ‘초라함’과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한국 정서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낮은 요인 적재치를 보여주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올레길 경험에서도 ‘몰입감’의 3가지 문항이 모두 0.8을 넘는 높은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Borrie & Roggenbuck(2001)은 과거의 철학자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움 또는 공존감을 가장 강력한 Wilderness 감정으로 제시하였는데, 경험을 마치고 나서 회상하는 시점에서 감정이 조금 더 미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즉 Borrie & Roggenbuck(2001)의 다면

적 연구 결과 자연과의 조화로 느끼는 감정의 풍요로움보다 현재 수행해야 하는 과제(걷기)에 보다 더 집중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몰입감)이 보다 더 사실적인 감정이며 회상하기 어려운 즉각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평온함’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앞서 분석한 현재 느끼는 감정 상태(mood)가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함(relaxation)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아 자연과의 동화로 인한 평온함도 증가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자유로움’과 같은 문항에서 0.627로 낮은 원인은 올레길이 대부분 자연을 가장 가까워서 느끼기 위해 만든 길이긴 하나 중간 중간 차도 옆을 걷기도 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기도 하므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박함’에서 4번 문항인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이 비교적 다른 문항에 비해 0.553으로 소박함의 요인에 대해 낮은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올레길의 자연환경에 익숙한 103명의 제주도민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항목이라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올레길의 자연과의 경험 중에 느끼는 4가지 요인을 각각 신뢰도 분석한 결과 4가지 요인의 Alpha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특히 ‘공존감’의 Alpha값이 0.908, ‘몰입감’의 Alpha값이 0.839로 분석되었다. 즉 올레길 경험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제시하면 ‘자연에 몰입하며 느끼는 즐거운 경험’으로 축약할 수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존감’의 항목 중 ‘현재 장소에서 정당한 행동을 원함’의 문항이 요인 적재치를 낮게 보여줌과 동시에 요

인과의 상관관계도 적음을 요인 적재량의 0.43과 같은 낮은 수치를 알아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소박함’의 요인에서도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의 항목은 소박함의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현 자체가 다소 문학적이고 비약적인 느낌이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몰입감’의 요인에서는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에 대하여 걱정’의 항목이 몰입감의 요인과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평균 5시간의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올레길 경험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개인적으로 약간의 간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본능적인 식욕이 몰입감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올레길 경험의 항목별 차이분석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에서 항목별 차이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개의 항목에 대하여 일반선형모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별 자연과의 느낌 차이와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 자연과의 느낌 항목별 차이분석

요인	항목(19개)	평균			withi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 값
		전	중	후		
공존감 ($\alpha=0.908$)	1. 자연의 일부임을 느낌	5.22	5.33	5.94	5.94*	0.003
	2. 자연과 특별한 친밀감	5.37	5.54	5.78	11.46**	0.000
	3. 자연에 완전히 몰입됨	5.06	5.39	5.46	14.43**	0.000
	7. 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류	5.20	5.18	5.34	1.89	0.151
	8. 지구가 활기 있게 살아있다는 느낌	5.26	5.56	5.66	14.45**	0.000
	9. 자연의 창조물에 경외감	5.43	5.62	5.86	12.65**	0.000
	10.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함	5.40	5.59	5.80	12.47**	0.000
	11.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초라함	4.20	4.20	4.45	3.80*	0.023
	18. 현재 장소를 소중히 여김	5.94	6.05	6.21	7.13*	0.001
	19. 현재 장소에서 합당한(올바른) 행동을 원함	5.91	6.13	6.28	16.31**	0.000
소박함 ($\alpha=0.773$)	4.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	4.57	4.67	4.75	2.17	0.115
	5. 오래길 경험으로 삶이 단순함을 느낌	4.38	4.98	4.86	9.75**	0.000
	6. 삶이 소박하다는 것을 느낌	4.98	5.06	5.23	4.55*	0.011
몰입감 ($\alpha=0.839$)	12.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	2.54	2.50	2.36	1.78	0.168
	13. 현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걱정	2.68	2.44	2.28	7.59*	0.001
	14. 식사를 해야 할 시간에 대해 걱정	2.67	2.60	2.31	6.51**	0.000
평온함 ($\alpha=0.759$)	15. 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자유로움	5.02	5.54	5.73	24.83**	0.000
	16. 현재 장소에서 평화로움을 느낌	5.77	5.98	6.06	24.83**	0.000
	17. 현재 장소에서 고요함을 느낌	5.71	5.74	5.94	15.13**	0.000

주:* $p<0.5$, ** $p<0.01$, *** $p<0.001$

제주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 변화 검증에서는 총 19개 항목 중에서 11개 항목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의 항목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올레길 자연과의 경험은 19개 항목 중 16개의 항목이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자연과 특별한 친밀감’, ‘자연에 완전히 몰입됨’, ‘지구가 활기 있게 살아있음을 느낌’,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함을 느낌’, ‘현재 장소에서 정당한 행동을 원함’과 같은 ‘공존감’의 경험이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삶의 단순함을 느낌’과 같은 ‘소박함’의 경험도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즉 경험 전에 기대하고 있던 느낌은 시간 추이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올레길 경험에서 얻는 자연과의 느낌을 추상적인 느낌에서 구체적인 감정으로 묘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사 시간에 대한 걱정’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낮아지는 것은 올레길 경험의 ‘몰입감’이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평온함’의 모든 항목들이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레길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과 자연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의 감정들이 증가하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평온함은 정윤조(2009)의 템플스테이 체험에서 자연동화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자연 앞에서 초라함’, ‘장소를 소중히 여김’, ‘삶이 소박함을 느낌’, ‘현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하여 걱정’과

같은 항목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 ‘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류’,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 같은 항목들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레길은 Wilderness에 가까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지정된 리본과 파란 화살표를 따라가야 하는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은 경험 전의 느낌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3번에 걸친 응답에서 비슷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의 항목은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당일코스로 올레길을 방문한 제주도민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올레길을 방문한 관광객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해방감도 관광객에 비해 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올레길 경험의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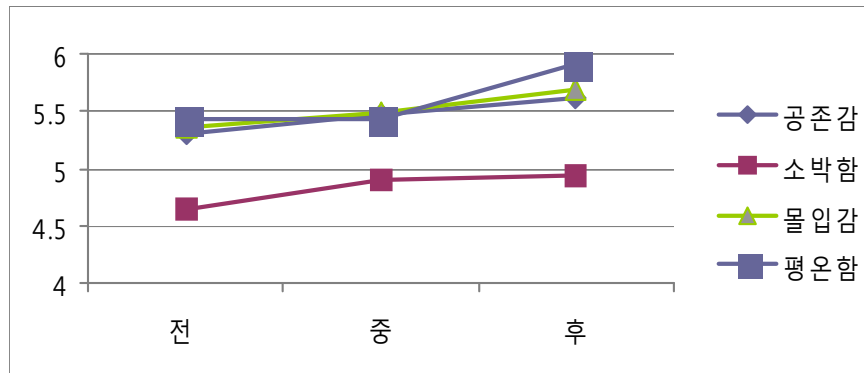
본 연구는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요인을 분석하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올레길 경험의 ‘공존감’, ‘소박함’, ‘몰입감’, ‘평온함’의 4가지 요인에 대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차이와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9 > 요인별 차이분석

항목	평균			withi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 값
	전	중	후		
공존감	5.30	5.46	5.62	19.50**	0.000
소박함	4.64	4.90	4.94	8.54**	0.000
몰입감	5.36	5.48	5.68	6.82*	0.001
평온함	5.43	5.43	5.90	42.13**	0.000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3 > 자연과의 느낌 변화분석



올레길 자연과의 경험 4가지 요인 중 ‘공존감’, ‘소박함’, ‘평온함’은 유의 수준 1%에서 긍정적인 차이와 변화를 확인하였고, ‘몰입감’은 긍정적인 차이와 변화를 보여주지만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올레길을 걸으며 느끼는 ‘공존감’과 ‘평온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과 동화되어 감정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공존감’은 경험 전 평균=5.30, 경험 후 평균=5.62로 경험을 마친 후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변화이며, ‘평온함’도 경험 전 평균=5.43, 경험 후 평균=5.90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 올레길 경험의 긍정적인 변화는 ‘자연과의 동화로 인해 평온함을 느끼는 경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몰입감’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긍정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올레길 경험에서도 ‘몰입감’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즉 ‘몰입감’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연과의 ‘공존감’을 더욱 깊이 느끼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평온함’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평균 5시간을 걸어야 하는 올레길 경험은 사람들에게 삶의 소박함, 단순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평균 17km를 걷기 위하여 가방의 짐도 덜어야 하고, 옷차림이나 신발도 기능적으로 단순하고 편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소박함과 단순함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에서 ‘소박함’의 요인도 경험 전 평균=4.64에서 경험 후 평균=4.94로 유의 수준 1%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박함’의 요인을 제외한 ‘공존감’, ‘몰입감’, ‘평온함’의 요인들의 변화가 경험 중-경험 후보다 경험 전-경험 중의 차이가 적은 것은 ‘걷기’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의 과제가 부담으로 느껴져 충분히 자연을 느끼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aplan & Talbot(1983)의 연구처럼 익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오로지 자신의 기술과 지식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에 대한 관심과 묘사가 구체적으로 변화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 경험에

서도 신체적인 활동의 과제가 몸에 적응이 되는 시점인 경험 중-경험 후에 자연과의 느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제 5 절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 및 변화분석

1.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올레길 경험의 편익은 총 13개 항목, 4개의 요인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편익의 13개 항목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여 단일 차원성을 저해시키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4-10> 편익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요인 (2개)	항목 (13개)	요 인 적 재 량	고 유 치	분산 설명력 (%)	공 통 치	평균
정서적 안정 ($\alpha=0.892$)	1.정신적 건강 증진	0.87	3.98	30.63	0.79	6.03
	2.육체적 건강 증진	0.82			0.73	5.87
	3.육체적 긴장 완화	0.86			0.78	5.88
	4.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0.74			0.59	5.94
	5.동반한 사람들과 유대증진	0.69			0.54	5.76
	6.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0.61			0.56	5.53
특별한 경험 ($\alpha=0.894$)	7.새로운 사람들과 만남	0.64	4.38	33.70	0.45	4.68
	8.색다른 경험	0.72			0.64	5.31
	9.올레길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	0.83			0.72	5.05
	10.올레길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	0.78			0.65	5.16
	11.설렘과 흥분	0.71			0.60	5.49
	12.도전을 경험	0.78			0.66	5.35
	13.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	0.77			0.61	4.87

우선 총 13개의 항목과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던 올레길 경험의 편익 항목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방법 절에서 제시한 요인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2개의 요인차원으로 구분되었다. Anderson *et al.*(2008)의 편익 요인 중 건강, 사회적 관계, 교육의 기회, 자기 계발과 같은 4가지 요인이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편익에서는 ‘정서적 안정’, ‘특별한 경험’의 2가지 요인으로 새롭게 명명되었다.

2가지 분석 결과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이 발견되지 않아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따라서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편익의 2개 요인차원을 기초로 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정서적 안정이 $\text{Alpha}=0.892$, 특별한 경험이 $\text{Alpha}=0.894$ 로 해당 연구 단위들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2. 올레길 경험의 편익 항목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올레길 경험으로 인한 편익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별 느끼는 편익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편익의 총 항목 13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1> 편의 항목별 차이분석

요인	항목 (13개)	평균			withi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 값
		전	중	후		
정서적 안정	정신적 건강 증진	6.03	6.09	6.25	6.34*	0.002
	육체적 건강 증진	5.87	6.04	6.12	9.18**	0.000
	신체적 긴장 완화	5.87	6.02	6.10	6.06*	0.002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5.94	6.13	6.16	6.19*	0.002
	동반한 사람들과 유대증진	5.76	5.83	5.91	2.04	0.130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경험	5.53	5.60	5.72	3.01	0.050
특별한 경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	4.68	4.70	4.74	0.22	0.796
	색다른 경험	5.31	5.33	5.41	0.78	0.45
	올레길의 문화와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5.05	4.95	5.01	0.81	0.443
	올레길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5.16	5.05	5.11	0.87	0.48
	설렘과 흥분	5.49	5.30	5.49	3.90*	0.021
	도전을 경험	5.36	5.38	5.54	2.96	0.052
	나의 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	4.87	4.92	5.27	11.47**	0.000

주:* $p<0.5$, ** $p<0.01$, *** $p<0.001$

모든 측정항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13개의 항목 중 2개의 항목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4개의 항목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체적 건강 증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평균 5시간의 ‘걷기’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으로 인한 변화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 건강 증진’,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과 같은 항

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설렘과 흥분’, ‘나의 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와 같은 자기 향상감과 같은 요인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였는데, 평상시에 신체적인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균 5시간의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올레길 경험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짐작해 본다.

그러나 ‘설렘과 흥분’이 중간지점에서는 오히려 경험 전 평균=5.49에서 경험 중 평균=5.30으로 낮아지는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색다른 경험’과 ‘올레길의 문화나 자연환경과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같은 문항들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요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3.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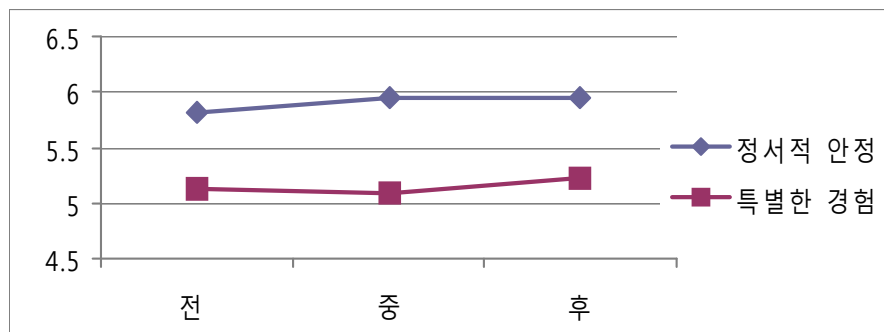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올레길 경험의 편익이 ‘정서적 안정’, ‘특별한 경험’ 2가지 요인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한 2가지 요인에 관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평균값에 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편의 요인별 차이분석

요인	평균			withi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 값
	전	중	후		
정서적 안정	5.81	5.95	5.95	4.28*	0.014
특별한 경험	5.12	5.09	5.23	2.96	0.053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4> 편의 변화분석



올레길 경험의 2가지 요인 중 ‘정서적 안정’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올레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 보다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방문을 하며, 경험 후에도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되는 편의를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무드’, ‘자연과의 경험’과 같은 변수들은 과거에 다면적인 연구에 적용이 되고 변화의 차이를 확인한 변수였으나, ‘편의’의 변수는 예전에

다면적인 연구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실험적인 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차이를 보였으며, 편익의 요인별 비교에서도 차이를 보여 다면적 연구에 ‘편익’은 의미 있는 변수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6 절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변수별 평균비교 분석

1. 무드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즉각적인 감정 상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평균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3>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무드 비교분석

변수	요인	시점	제주도민 (n=103)	관광객 (n=195)	t값	p값
현재 느끼는 감정상태	지루한	전	2.17	2.40	1.143	0.254
		중	2.32	2.48	0.797	0.426
		후	1.94	1.78	-1.008	0.314
	편안한	전	5.04	4.90	-0.706	0.481
		중	5.35	5.04	-1.602	0.110
		후	5.70	5.22	-2.522	0.012*
	흥미진진한	전	5.47	5.47	0.042	0.966
		중	5.24	5.14	-0.591	0.555
		후	5.18	5.10	-0.431	0.667
	서두르는	전	3.28	3.24	-0.161	0.872
		중	3.05	3.15	0.478	0.633
		후	2.83	2.96	0.603	0.545

주:* $p<0.5$, ** $p<0.01$, *** $p<0.001$

총 유효 표본을 구성하는 103명의 제주도민과 195명의 관광객의 즉각적

인 감정 상태를 비교한 결과 경험 후에 느끼는 편안함의 감정에서만 유의 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익숙한 자연환경에 관한 제주도민의 느낌과 관광지에서 느끼는 관광객의 감정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이와 같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은 친숙한 자연환경에서 편안함을, 그리고 관광객은 새로운 자연환경에서 흥미진진함을 즉각적으로 느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올레길 고유의 자연이 주는 느낌은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유사했다.

물론 자연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편안한 감정이라 단정할 수도 있으나, 제주 올레길은 흥미로운 관광장소이기 전에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장소로, 제주도 관광지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2. 장소애착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본 연구의 유효표본 298명을 구성하는 제주도민 103명, 관광객 195명에 관한 장소애착의 차이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에 관한 평균비교 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14>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장소애착 비교분석

변수	요인	시점	제주도민 (n=103)	관광객 (n=195)	t값	p값
장소애착	장소의존성	전	5.63	5.05	3.781	0.000**
		중	5.65	5.34	-2.020	0.044
		후	5.86	5.46	2.770	0.006*
	장소정체성	전	5.33	4.87	3.041	0.003*
		중	5.34	5.06	-1.871	0.060
		후	5.56	5.28	1.907	0.057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5 > 요인 1 ‘장소의존성’의 비교분석



평균비교 분석 방법을 실행하여 장소애착의 2가지 요인에 대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그림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올레길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에 장소애착의 변화의 정도를 보여준다. 우선 장소애착의 변수는 지역주민이나 그 장소에서 지내온 시간과 같은 양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과 같은 방문객들도 관광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경험 전에도 측정할

수 있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즉 자신이 지내온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 관하여도 충분히 애착을 가질 수 있음을 관광객의 경험 전 장소 의존성이 평균=5.05, 장소 정체성이 평균=4.87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요즘처럼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이 양적 · 질적으로 충분한 정보화시대에는 방문 전에도 관광지 장소에 대하여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 올레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주로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자신이 방문할 코스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미 그 장소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애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소애착의 각 요인에 대하여 경험 전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경험 후에는 장소 의존성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장소 정체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소애착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주도민은 경험 전, 경험 후의 변화가 0.23인 데 비해 관광객의 요인별 변화는 0.41로 제주도민에 비해 약 1.7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장소애착에 관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비교분석을 요약하면 첫째, 방문하기 전 관광객도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경험 전 장소애착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경험 후에는 장소 정체성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제주도민이 경험 전, 경험 후의 장소애착의 변화가 0.23인 데 비해 관광객의 경험 전, 경험 후 장소애착의 변화는 0.41로 약 1.7배 높게 증가했다.

2. 자연의 느낌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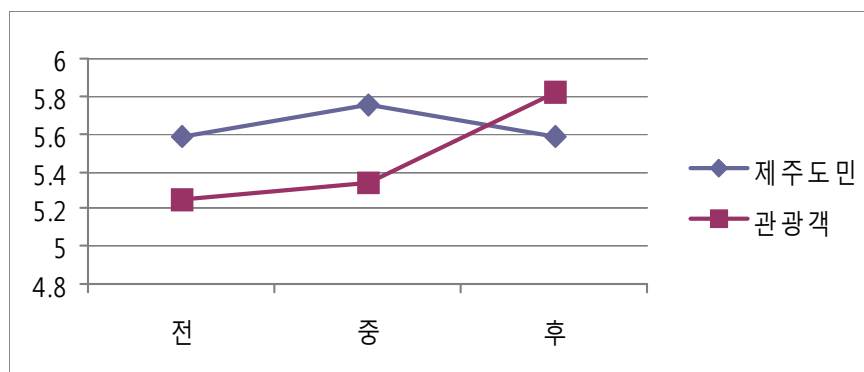
총 유효표본 298명 중 103명인 제주도민과 195명의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과의 경험을 평균 비교분석하였다.

<표 4-15>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자연과의 느낌 비교분석

변수	요인	시점	제주도민 (n=103)	관광객 (n=195)	t값	p값
자연과의 느낌	공존감	전	5.46	5.21	2.038	0.042*
		중	5.50	5.45	-0.467	0.641
		후	5.70	5.58	-1.118	0.264
	소박함	전	4.71	4.61	-0.640	0.523
		중	4.85	4.94	0.528	0.598
		후	4.96	4.94	-0.120	0.905
	몰입감	전	5.58	5.25	-1.766	0.078
		중	5.75	5.34	-2.244	0.026*
		후	5.59	5.82	-1.290	0.198
	평온함	전	5.47	5.42	0.325	0.745
		중	5.79	5.74	-0.432	0.666
		후	5.82	5.59	-1.036	0.301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6>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요인 3 ‘몰입감’ 비교분석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자연에서 느끼는 경험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험 전 ‘공존감’에 관한 느낌과 경험 중 ‘몰입감’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경험 후 자연과의 느낌에 있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관광객도 평균 5시간의 올레길 경험으로 충분히 제주도의 자연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몰입감’의 변화에 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비교한 결과 경험 전, 경험 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험 중 제주도민은 관광객에 비해 평균=5.75로 높게 증가하였으나 경험 후의 몰입감은 오히려 평균=5.59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의 몰입감은 경험 전 평균=5.58에서 경험 후 평균=5.59로 0.01 증가한 반면, 관광객의 몰입감은 경험 전 평균=5.25에서 경험 후 평균=5.82로 0.47로 비교적 높게 증가하였다.

즉 제주도민인 경우 경험이 끝남과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경험 후의 몰입감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 반면, 관광객은 일상에서 해방감이 올레길 경험 후에도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첫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경험 전 ‘공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제주도민은 경험 후 ‘몰입감’의 변화가 0.01로 적은 반면 관광객은 ‘몰입감’의 변화가 0.47로 경험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자연과의 느낌 중 소박함과 평온함에서는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편익의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편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도민 103명, 관광객 195명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6> 제주도민 관광객 편익 비교분석

변수	요인	시 점	제주도민 (n=103)	관광객 (n=195)	t값	p값
편익	정서적 안정	전	5.96	5.76	-1.767	0.078
		중	6.08	5.88	-1.871	0.062
		후	6.08	5.88	-1.871	0.062
	특별한 경험	전	5.11	5.14	0.215	0.830
		중	5.05	5.11	0.460	0.646
		후	5.17	5.25	0.539	0.590

주:* $p<0.5$, ** $p<0.01$, *** $p<0.001$

편익의 2가지 요인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제주도민은 ‘정서적 안정’의 기대가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대보다 0.85정도 높았으며, 관광객도 ‘정서적 안정’의 요인에 대한 기대가 0.62정도 높았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올레길 경험을 ‘특별한 경험’의 기회로 생각하기보다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여가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예상과 다르게 관광객들도 익숙하지 않은 올레길 체험을 새로운 문화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보다, 제주도민과 비슷하게 여가와 같은

‘정서적 안정’을 기대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점에서 올레길의 새로운 관광 패턴을 엿볼 수 있다.

즉 관광활동에서 기대하는 ‘새로움’, ‘흥미진진함’의 감정을 대표할 수 있는 편익의 요인인 ‘특별한 경험’보다는 오히려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여가활동에서 기대하는 ‘정서적 안정’, ‘편안함’의 느낌이 많은 올레길의 모습은 이곳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건강한 여가 활동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올레길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이 ‘관광장소’에서 ‘여가활동 장소’로 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체 관광객 109명 중 50%가 넘는 109명이 관광 일정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1박 또는 2박의 짧은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편익에 관한 요인별 비교분석을 요약하면 첫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편익에 관한 비교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올레길은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익의 요인 중 ‘특별한 경험’보다는 ‘정서적 안정’을 더욱 기대하고 경험 후에도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되는 효과를 동일하게 경험하였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 제주 올레길 경험의 변수별 차이분석

본 연구는 현재 느끼는 감정 상태(mood),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에 관한 변수를 제주올레길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시점별로 동일한 사람에게 다면적으로 측정하여,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올레길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주 올레길 경험에 대한 각 변수별 다면적인 측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mood)를 다면적으로 측정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차원 중 2개의 요인인 ‘지루함’과 ‘편안함’의 감정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2개의 요인인 ‘흥미진진함’, ‘서두름’의 감정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지루함’은 경험 중에 조금 증가하였다가 경험 후에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편안함’의 감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흥미진진함’과 ‘서두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둘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장소애착의 차이와 변화를 알아본 결과 ‘장소 의존성’과 ‘장소 정체성’ 2가지 요인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경험 전 관광객의 장소애착을 측정함으로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장소에 대하여서도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주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에서는 총 4개의 요인차원 중 3개의 요인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1개의 요인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공존감’, ‘소박함’, ‘평온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평온함’이 0.47의 변화를 보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몰입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넷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편익의 2가지 요인 중 ‘정서적 안정’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특별한 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개의 요인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2. 제주도민과 관광객 변수별 비교분석

본 연구의 총 298명의 유효 표본을 구성하는 103명의 제주도민과 195명의 관광객의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mood),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에 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mood)를 경험 전(I), 경험 후(II)의 평균 값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경험 후의 ‘편안함’에서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느끼는 장소애착에 대한 경험 전(I), 경험 후(III)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험 전에 느끼는 ‘장소 의존성’ 요인에서만 유의수준 1%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험 전의 ‘장소 정체성’과 경험후의 ‘장소 의존성’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경험 전과 경험 후의 장소애착 요인별 변화율은 제주도민이 0.23%인 데 비해 관광객의 변화율은 0.41로 약 1.7배 높이 증가하였다.

셋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올레길에서 경험한 자연과의 느낌에 대해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험 전의 ‘공존감’ 요인에서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몰입감’의 요인에서는 제주도민이 경험 전과 경험 후의 변화가 0.01%인 데 비하여 관광객의 몰입감은 0.47%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제주도민은 올레길 방문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경험하는 편익에 있어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편익의 요인 중에서 ‘특별한 경험’보다는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하고, 경험 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mood)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흥미진진함이 감소하고, 편안함이 증가하는 요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올레길 경험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소멸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을 추적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세 시점별 설문지를 배부, 각각 올레길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즉각적인 감정상태(mood)의 변화에서 ‘편안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흥미진진함’은 줄어들었으며, ‘지루함’도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둘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장소애착의 2가지 요인인 ‘장소의 존성’과 ‘장소 정체성’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또한 관광객도 경험 전에 ‘장소 애착심’을 보여줌으로써 그 장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방문객에게도 측정할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소애착은 제주도민처럼 시간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의 질적인 경험도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주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의 4가지 요인인 ‘공존감’, ‘소박함’, ‘평온함’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며, ‘몰입감’ 또한 유의수준 5%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요인별 평균을 비교하면 올레길을 경험하며 자연과 가장 많이 교감하는 감정은 ‘평온함’과 ‘몰입감’이며, 이는 즉각적인 감정 상태(mood)에서 편안함이 증가

하는 근거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편익의 2가지 요인인 ‘정서적 안정’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며, ‘특별한 경험’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요인별로 비교해보면 ‘정서적 안정’이 ‘특별한 경험’에 비해 평균이 높았으며, 경험 전 편익은 동기나 욕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주 올레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올레길을 방문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총 유효 표본 298명을 구성하는 103명의 제주도민과 195명의 관광객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변수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경험 전에 느끼는 장소애착은 2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경험 후에 느끼는 장소애착은 1가지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장소애착은 단시간의 질적인 경험으로 영향력을 받는 변수임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경험 후의 ‘몰입감’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관광객의 ‘몰입감’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관광객 그리고 제주도민이 기대하는 편익과 경험 후의 편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유사한 동기인 ‘정서적 안정’의 이유로 올레길을 방문하며, 경험 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편익을 느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올레길이 여가와 관광경험을 기능적 · 감성적으로 동일한 편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공급자적 관점에서 물리적인 속성과 같은 주변요소를 고

려하는 것 보다는 관광경험과 같은 심리적 기능의 고유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장소애착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함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동우(2008)가 연구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심리치료 혹은 여가치료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론적으로 머물러 있던 개념을 실제 관광지에서 실험함으로써 여행치료와 같은 국민복지 관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제주올레길 경험을 구체화하였으며, 실험적 연구방법인 다면적 조사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제주 올레길은 현재 총 19개 코스이며, 코스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되는 14-1코스, 7코스에서의 표본 추출은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제주 올레길의 중간 지점인 '경험 중(II)' 설문지에서 표본을 완벽하게 통제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물론 설문지마다 시간을 직접 기입하게 하고, 중간지점에서 통제가 되지 않았던 표본에 대하여 비교적 꼼꼼히 확인은 하였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도 구체적인 한계에 포함된다.

셋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비교분석은 어떤 면에서는 14-1코스와 7코스의 비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4-1코스에서 제주도민이, 7코스에서는

관광객이 많았으므로 자칫 코스의 비교분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에는 없었지만, 평상시 운동량과 올레길 경험의 만족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평상시 운동량, 성격, 가치관 정도에 따라 평균 5시간의 걷기와 같은 신체적 활동과 친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코스를 마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등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연구방향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고동우 (2005). 축제 방문자의 내생적 체험과 외생적 체험 비교연구. 『한국 관광·레저학회』 17(4), 45-64.
- 고동우 (2008). 여가활동유형과 내재적 보상이 여가정체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텔관광학회』
- 고동우 (2008). 여가치료의 관점으로 본 관광 체험의 심리적 효과. 『호텔 관광연구』 28(1), 1-20.
- 고동우 (2009). 해외수학여행의 심리적 효과. 『한국 관광 학회』 33(4), 447~467
- 성영신 · 고동우 · 정준호 (1996). 여가의 심리학적 의미. 『한국 심리학회 지 산업 및 조직』 9(2), 17-40.
- 신원섭 (2002). 산림의 이용과 심리적 편익. 『한국식물 · 인간 · 환경학회』 5(4), 7-13.
- 신행우 · 이종한 · 한성열 · 허태균 · 채정민 (2004). 이(異) 문화권내 적응 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적응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 10(1), 147-163.
- 안대희 · 유도재 (2005). 국외관광객의 스트레스가 만족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연구』 7(2), 27-437-13,
- 조남근 · 양돈규 (2001). 본가 소재지역, 본가-대학 간 이동시간, 거주방 식 및 통학시간에 따른 대학입학 만족도 및 스트레스 수준의 차

이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7(1), 119-141.

조명환 · 김희진 (2007). 한·중 도시 직장여성의 여가기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관광학회』 9(1), 43-52.

조상희 (2006).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여행객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마케팅과학연구』 16(1), 27-43.

2. 국외문헌

- Arnold, E. J. & Price, L. L. (1993). River magic: Extraordinary and extended service encount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24-45
- Barnett, L. A. (1984). Young children's resolution of distress through pla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477-483.
- Bedimo-Rung. A. L., Mowen, A.J. & Cohen, D. A. (2005). The significance of parks to physical activity and public health: A conceptual model.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8(2), 159-168.
- Borrie, W. T. & Roggenbuck, J. W. (2001). The dynamic, Emergent, and multi-phase nature of on-site wilderness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 202-228.
- Bixer, R. D. & Floyd, M. F. (1997). Nature is scary, disgusting and uncomfortable. *Environmental Behavior*, 29, 443-467.
- Celsi, R. L., Rose, R. L. & Leigh, T. W. (1993). An exploration of high-risk leisure consumption through skydiv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1-23
- Clawson, M. (1963). Land and water for recreations-opportunities, problems, and policies. Resource for the Future Policy Background Series. Chicago: Rand McNally
- Coleman, D. & Iso-Ahola, S. (1993). Leisure and health: The social

-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 111-128.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Perennial.
- Dattilo, J., Dattilo, A. M., Samdahl, D. M. & Kleiber, D. A. (1994). Leisure orientations and self esteem in woman with low incomes who are overweigh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23-38
- Debra J. J. & Jordan, S. (2008). An Exploration of Meaning of Parks in Oklahoma.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27,17-32
- Dorothy, H. A., Sonya A. S., Ingrid E. S., Jessica E. L.(2008). Proximate and distant visitors: Differences in importance ratings of beneficial experienc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26,47-64.
- Driver, B. L., Nash, R. & Hass, G. E. (1987). *Wilderness benefits: a state of knowledge review*. Issue, State-of-knowledge, Future Direction, Fort Collins, CO. July 23-26, 1985.
- Driver, B. L. & Peterson, G. L. (1987). Benefits of outdoor recreation: an integrating overview. pp.1-10 in *A Literature Review-Presidents' Commission on Americans Outdoor*. Washington, D.C: Govement Printing Office. 11, 293-301.
- Ellis, G. D., & Rossman, J. R. (2008). *Creating Value for*

- Participants through Experience Staging.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26, 1-20.
- Farnum, J., Hall, T. & Kruger, L. (2005). Sense of place in natural resource recreation & tourism.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Pacific Northwest Research Station. 59pp
- Godbey, G. C., Caldwell, L. L., Floyd, M. & Payne, L. (2005). Contributions of leisure studies and recreation and park management research to the active living agenda.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8(2s2), 150-158.
- Gilmore H. J., & Pine, B. J. (2002). Differentiating hospitality operations via experiences.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43, 87-96.
- Hammitt, W. E. (1980). Outdoor Recreation: Is it a multi-phas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07-115.
- Hammitt, W. E & Madden, M. A. (1989). Cognitive dimensions of wilderness privacy: a field test and further explanation. *Leisure Science*,
- Henderson, K. (1996). one size doesn't fit all: 28, 139-154
- Henderson, K. (1996). Woman and outdoors toward spiritual empowerment, In K Warren (Ed), *Womans voices in experiential education* (pp193-202) Dubuque, Iowa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Hull, R. B., Stewart, W. P. & Yi, Y. K. (1992). Experience patterns: Capturing the dynamic nature of a recreation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240-252
- Hull, R. B. IV & Michael, S. E. (1995). Nature-based recreation, mood change, and stress reduction. *Leisure Science*, 17, 1-14.
- Hull, R. B. IV & Michel, S. E., Walker, G. & Roggenbuck, J. W. (1996). Ebb and flow of brief leisure experience. *Leisure*
- Hull, R. B., & Stewart, W. P. (1991). Validity of photo-based scenic beauty assess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in press.
- Hutson, G. (2007). Perceptions of outdoor recreation professionals toward place meanings in natural environment. Unpublished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Stillwater, OK.
- Ingham, R. (1986). Psychological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leisure-Par two. *Leisure Studies*, 6(1), 1-14
- Iso-Ahola, S. E. and Chen J. P. (1996). Leisure-Related social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as buffers of stress-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 169-187.
- Iwasaki, Y., & Mannell, R. C. (2000). Hierarchical dimensions of leisure stress coping. *Leisure Science*, 22, 163-181.
- Kaczynski, A., & Henderson, K. A. (2007). Environmental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A review of evidence about parks and

- recreation. 29, *Leisure Science*, 315-354.
- Patterson, M. E., Watson, A. E., Williams, D. R., & Roggenbuck, J. R. (1998). A hermeneutic approach to studying the nature of wilderness experi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 423-452.
- Roggenbuck, J. W., Loomis, R. J., & Dagostino, J. (1990). The learning benefit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12-124.
- Russell, R. V. (1996). *Pastimes: The Context of Contemporary Leisure*, Iowa: Brown & Benchmark.
- Kaplan, S., & Talbot, J. F. (1983). Psychological benefits of a wilderness experience. In I. Altman, & J. F. Wohlwill (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Vol. 6. Behavior and natural*
- Kaplan, R., Kaplan, S., & Ryan, R. L. (1998). *With people in mind: Design and management of everyday nature*. Washington, D.C.: Island Press
- Klausner, S. Z. (1967). Sport Parachuting. In R. Slovenko and J. A. Knight(Eds.). *Motivations in play, games, and sports*. New York: Charles C. Thomas.
- Lee, Y., Dattilo, J., & Howard, D. (1994). The complex and dynamic nature of leisur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195-211.

- Low, S. M., & Altman, I. (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In I. Altman, & Low, S. M.(Eds), *Place Attachment* (pp1-12) NY: Plenum Press.
- Mannell, R. C., & Iso-Ahola, S. E. (1987). Psychological nature of leisure and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 314-331.
- McIntyre, N. (1989). The personal meaning of participation: Enduring involv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 167-179.
- McIntyre, N. & Roggenbuck, J. W. (1998). Nature/Person transactions during an outdoor adventure experience: a multiphase analy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 401-422
- McCormick, B. P., Funderburk, J. A., Lee, Y., & Hale-Fought, M. (2005). Activity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experience: Predicting boredom and anxiety in daily life of community mental health cli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2), 236-253.
- McDonald, B. L. & Schreyer, R. (1991). Spritual benefits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ettings. pp. 179-194
- Millena & Vilma (2000).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Is It a protective factor for woman's mental healt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 457-472.

- Moore, R., & Graefe, A. (1994). Attachments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 16, 17-31
- Neuringer, J. (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ches to the study of Leisure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
- Orthner, D. K. & Mancini, J. A. (1991). Benefits of leisure family
bonding. pp 289-301
- Phallip, S. F. (1997), Race, Gender and Leisure Benefits. *Leisure
Science* , 19, effects on life stress, loneliness, and evaluations
by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Pine, B. Joseph & James H. Gilmore, (1998). 『고객체험의 경제학』 .
세종서적
- Rock, S. (1987). Social support versus companionship: Ef
- Roggenbuck, J. W., Loomis, R. J., & Dagostino, J. (1990). The
learning benefit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 112-124.
- Rossmann, B. B. & Ulehla, J. (1977). Psychological reward values
associated with wilderness use: a functional reinforcement
approach. *Environment and Behavior* 9: 41-66
- Sarah, L. Pohl & William T. Borrie and Michael E. Patterson.
(2000). Woman, Wilderness, and Everyday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 415-434.
- Scherl, L. M. (1989). Self in wilderness: understanding the

- psychological benefits of individual -wilderness interaction through self-control. *Leisure Science*, 11,123-135
- Scherl, L. M. (1989). The wilderness experience: a psychological evaluation of its components and dynamics. In A. T. Easley, J. F. Passineau & B. L. Driver (Compilers), The use of wilderness for personal growth, therapy, and education. (pp. 11-26). USDA Forest Service General Report RM-193. Fort Collins, CO: Rocky Mountain Forest Experiment Station.
- Schroeder, H. (1991). Preference and meaning of arboretum landscapes: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11,231-48
- Shamir, B. (1992). Some correlates of leisure identity salience: Three exploratory stud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301-323.
- Shary, J. M., & Iso-Ahola, S. (1989). Effects of a control-relevant intervention on nursing home resident's perceived competence and self esteem. *Therapeutic Recreational Journal*, 23, 7-16.
- Smaldone, D., Harris, C., & Sanyal, N. (2005). An exploration of place as process: The Case of Jackson Hole, WY.*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 397-414.
- Stedman, R. C. (2002). Up North: A social psychology of

- place:predicting behavio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5), 561-581.
- Stedman, R. C. (2003) Is it really just a social construction?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6, 671-685.
- Stewart (1998). Leisure as Multiphase Experience:*Journal of Leisure Research*,30,391-400
- Stokols, D., & Shumaker, S. A. (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In J. Harvey (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Environment*. NJ: Erlbaum.
- Tuan, Y.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wigger-Ross, C., & Uzzell, D. (1996). Place and Identity Process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05-220.
- Ulrich, R. W., Dimberg, U., & Driver, B. L. (1990). Psychological indicators of leisure consequ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54-166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Healthy People 2010: Understanding and improving health.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g Office.
- Wakins, M. (2000). Ways of learning about leisure meanings.,*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93-107

제주 올레길 경험의 역동성(I)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제주올레경험을 다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교수: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김 성 석 교수 (sskim@sejong.ac.kr 019-503-0526)
연구자: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과정 이 보미 (bmlee25@naver.com 010-7270-9443)

I. 현재 느끼는 감정상태

현재 느끼는 감정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지루한(Bored)							
편안한(Relaxed)							
흥미진진한(Excited)							
서두른(Rushed)							

II. 올레길 경험 전 장소에착

올레길 경험 전 장소에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 올레길은 최상의 관광장소가 될 것이다.							
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과 맞바꿀 수 없을 것이다.							
올레길은 어떤 관광지에서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줄 것이다.							
올레길은 나의 일부와도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올레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올레길 경험으로 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올레길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시각은? () 시 () 분.

III. 예상되는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

예상되는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	점 수						
	전혀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크다		
나는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과 특별한 친밀감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에 완전히 몰입됨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올레길 경험으로 삶이 단순함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삶이 소박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옛 길을 걸으며 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류를 하게 될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지구가 활기있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의 창조물에 경외감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함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초라함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현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식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그 시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에서 교묘함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과 접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서 합당한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1	2	3	4	5	6	7

IV. 올레길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 기대

올레길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 기대	점 수						
	전혀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크다		
정신적 건강 증진	1	2	3	4	5	6	7
육체적 건강 증진	1	2	3	4	5	6	7
신체적 건강 완화	1	2	3	4	5	6	7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1	2	3	4	5	6	7
동반한 사람들과 유대증진	1	2	3	4	5	6	7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	1	2	3	4	5	6	7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	1	2	3	4	5	6	7
새로운 경험	1	2	3	4	5	6	7
올레길의 문화와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1	2	3	4	5	6	7
올레길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1	2	3	4	5	6	7
선행과 흥분	1	2	3	4	5	6	7
도전을 경험	1	2	3	4	5	6	7
나의 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	1	2	3	4	5	6	7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올레길 경험의 역동성(II)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제주올레경험을 다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교수: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김 성 섭 교수 (sskim@sejong.ac.kr 019-503-0526)
 연구자: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과정 이 보미 (bmlee25@naver.com 010-7270-9443)

I. 현재 느끼는 감정상태

현재 느끼는 감정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지루한(Bored)							
편안한(Relaxed)							
흥미진진한(Excited)							
서두른(Rushed)							

II. 올레길 경험 중 장소에착

올레길 경험 중 장소에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과 비교할 수 없다.							
제주 올레길은 최상의 관광장소다.							
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과 맞바꿀 수 없다.							
올레길은 어떤 관광지에서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준다.							
올레길은 나의 일부와도 같은 곳이 되고 있다.							
올레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올레길 경험으로 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올레길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시각은? () 시 ()분.

III.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과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에 완전히 몰입됨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올레길 경험으로 삶이 단순함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삶이 소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옛 길을 걸으며 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지구가 활기있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의 창조물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함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현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식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그 시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에서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에서 고요함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과 접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서 합당한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6	7

IV. 올레길 경험 중 편익

올레길 경험 중 편익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정신적 건강 증진	1	2	3	4	5	6	7
육체적 건강 증진	1	2	3	4	5	6	7
신체적 긴장 완화	1	2	3	4	5	6	7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1	2	3	4	5	6	7
동반한 사람들과 유대증진	1	2	3	4	5	6	7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	1	2	3	4	5	6	7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	1	2	3	4	5	6	7
새로운 경험	1	2	3	4	5	6	7
올레길의 문화와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1	2	3	4	5	6	7
올레길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1	2	3	4	5	6	7
선행과 흥분	1	2	3	4	5	6	7
도전을 경험	1	2	3	4	5	6	7
나의 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	1	2	3	4	5	6	7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올레길 경험의 역동성(III) 연구

본 설문조사

도교수: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김 성 섭 교수 (sskim@sejong.ac.kr 019-50
 연구자: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과정 이 보미 (bmlee25@naver.com 010-727

지도교수: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김 성 섭 교수 (sskim@sejong.ac.kr 019-503-0526)
 연구자: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과정 이 보미 (bmlee25@naver.com 010-7270-9443)

1. 귀하는 2005년 이후 제주도 올레길을 몇 번 이용하셨습니까(이번 포함)? ()회
2. 귀하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1) 국 외 2) 제주도 3) 제주도 이외지역(기업체 주세요 _____)
3.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4. 귀하의 연령은? ()세
5. 귀하의 결혼 여부는? 1) 미혼 2) 기혼 3) 기타
6. 귀하가 올레길 여행 동반한 유형은? 1)가족과 함께 2)친구와 함께 3)혼자 4)기타
7. 귀하의 올레길 여행 동반자 수는? 1)1명 2)2명 3)3명 4)4명 5)5명 6)6명 이상
8. 귀하는 제주 올레길 여행 일정을 며칠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1) 1박 2)2박 3)3박 4)4박 이상

I. 현재 느끼는 감정상태

현재 느끼는 감정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지루한(Bored)							
편안한(Relaxed)							
흥미진진한(Excited)							
서두른(Rushed)							

II. 올레길 경험 후 장소애착

올레길 경험 후 장소에작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과 비교할 수 없었다.	1	2	3	4	5	6	7
제주 올레길은 최상의 관광장소였다.	1	2	3	4	5	6	7
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과 맞바꿀 수 없었다.	1	2	3	4	5	6	7
올레길은 어떤 관광지에서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주었다.	1	2	3	4	5	6	7
올레길은 나의 일부와도 같은 곳이 되었다.	1	2	3	4	5	6	7
올레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였다.	1	2	3	4	5	6	7
올레길 경험으로 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1	2	3	4	5	6	7
나는 올레길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5	6	7

현재 시각은? ()시 ()분.

III. 올레길 경험 후 자연과의 느낌

올레길 경험 후 자연과의 느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과 특별한 친밀감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에 완전히 몰입됨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올레길 경험으로 삶이 단순함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삶이 소박하다는 것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옛 길을 걸으며 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류를 하였다.	1	2	3	4	5	6	7
나는 지구가 활기있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의 창조물에 경외감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함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초라함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현재도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현재도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식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그 시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에서 교요함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이 장소가 소중한다는 것을 느꼈다.	1	2	3	4	5	6	7
나는 자연과 접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서 합당한 (올바른) 행 동을 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6	7

IV. 올레길에서 얻었던 편익

올레길에서 얻었던 편익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정신적 건강 증진	1	2	3	4	5	6	7
육체적 건강 증진	1	2	3	4	5	6	7
신체적 건강 완화	1	2	3	4	5	6	7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1	2	3	4	5	6	7
동반한 사람들과 유대증진	1	2	3	4	5	6	7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	1	2	3	4	5	6	7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	1	2	3	4	5	6	7
새로운 경험	1	2	3	4	5	6	7
올레길의 문화와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1	2	3	4	5	6	7
올레길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1	2	3	4	5	6	7
선행과 흥분	1	2	3	4	5	6	7
도전을 경험	1	2	3	4	5	6	7
나의 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	1	2	3	4	5	6	7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Dynamic Nature of On-Site Jeju Olle Experience

Bo-Mi Lee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Tourism

Sejong University

Although leisure experience is characterized as being multi-dimensional, transitory and multi-phased, few empirical studies have explored the complexity and dynamics of leisure experiences.

The study reported here on the multiphasic nature of trips into the Jeju Olle experience begins to address some of Stewart`s challenges. The first is that leisure is purported to not simply be a *state* of mind; it is instead *states* of mind. These states of mind might, for example, include several types of positive emotions, personal meanings associated with the challenges of leisure

environments, and cognitions related to such things as way-finding during leisure travel. Second, these multiple states are dynamic, evolving, and dependent in part on context. Finally, research methods that attempt to measure the dynamic, evolving, and contextual states of leisure must necessarily be innovative and deserve further experimentation and developmen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current understanding of this phenomena. Experience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wilderness visitors 3 times during a visit to the Jeju Olle. Four moods(bored, relaxed, excited, rushed) and place attachment(place dependence, place identity), four aspects of wilderness experience(oneness, timelessness, solitude, care) and benefits(health, social interaction, learning, achievement).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peated measures analyses demonstrated significant change from the entry, through immersion, to the exit phases of the Jeju Olle experience. This experiential change included greater 'place attachment' at the exit compared to the entry phase, and mood changes over the course of Jeju Olle experience. Scores on oneness, solitude, timelessness were higher at the exit than during entry, and the importance of benefit opportuniti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benefit experiences as more important benefit experiences than 'special experience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 of Jeju Olle

experience and compares the results of visitors living in Jeju or not. within factors timelessness experience consistently were identified as higher experiences by distant visitors than by proximate visitors.

Implications of findings for understanding the complex nature of leisure experiences are provided.